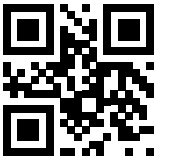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17호 2020년 9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응남 편집인: 오치주

미주동창회 제29차 평의원회의 뉴욕 개막



“미주동창회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을”



존경하는 미주동창회 평의원 /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데믹 사태로 전반적인 사회여건이 어려운 중에도, 모교와 동문애로 제 29차 평의원 회의에 직접 또한 영상으로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방역규정으로 이자리에 영상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수고한 동문에게는 공로패도 보내주신 모교 오세정 총장님 그리고 이희범 총동창회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 동창회를 훌륭하게 이끌고, 본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각 지역 동창회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외 12개국 동창회 중, 격려차 온라인 축사로 참여하시는 호주 총동창회 김정인 회장님 환영합니다.

미주동창회는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백년을 위한 꿈과 계획도 한 단계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5대 임기의 1 차 년도에서는 첫번째 주요 사업으로 약 1,500 명 동문들의 새주소록을 첨가하여 회보 발송 데이터 베이스를 강화했습니다. 각 지부 회장단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임기에서 시작한 동창회 재정 자립을 위한 CENTURY FOUNDATION 3백만불 모금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1차년도에 5만 6천여 불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편, 늦어지던 동창회보 발행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매달 10일 이전에 회보메일이 각 지역동문들께 도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회보 편집에서는 우수한 필진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비전과 전문지식, 소통을 추구하여, 매월 지상 만남의 광장을 펼쳐 왔습니다.

보다 나은 동창회를 위해 달려오던 지난 일 년 중에도, 많은 동문들의 끊임없는 격려 전화, 이메일 등은 늘 활동의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동문인 남편의 부고를 전하는 부인이, 고인된 남편 뜻을 따라 동창회로 종신 이사비를 보내온 훈훈한 감동스토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창회 운영을 염려해 천여명의 동문들이 묵묵히 작거나 많은 회비 및 후원금을 보내어 성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기 2차년도에 들어서서 각 지부, 각 동문간의 소통과 유대관계를 더욱 증진하며, 남은 지역 주소록 업데이트를 완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새 동문의 영입을 증가시키려 합니다. 동창회보와 웹사이트의 지속적인 개선, 기금 모금 등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한 사회는 그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서울대 동문들은 본인

의 선택에 관계 없이, 한국의 엘리트로 불리며, 조국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정한 품격과 자질이 있습니다.

선진 문명을 이룬 사회의 리더들은 역사성(History), 도덕성(Morality), 희생성(Sacrifice), 연대성(Solidarity) 그리고 후계성(Succession)들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내가 이러한 품성을 갖고있는가? 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미주동창회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불가능한 여건을 극복하고 이번 평의원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 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응남 회장 배상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축.사

“모교발전 역량 결집하는 자리되길”

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신용남 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부 동창회장님과 동문 여러분, 특히 오늘 공로패를 수상하시는 오홍조, 손재욱, 윤상래 동문님과 워싱턴 DC 지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의 '제29차 평의원 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한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COVID-19 감염병과의 싸움은 아직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COVID-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주 동문들께서 타국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미국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듯 서울대와 우리 동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을 위한 세계사회의 노력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대는 시대변화의 파고를 극복하며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무거운 책무를 부여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주요 인재를 양성하고 소중한 지식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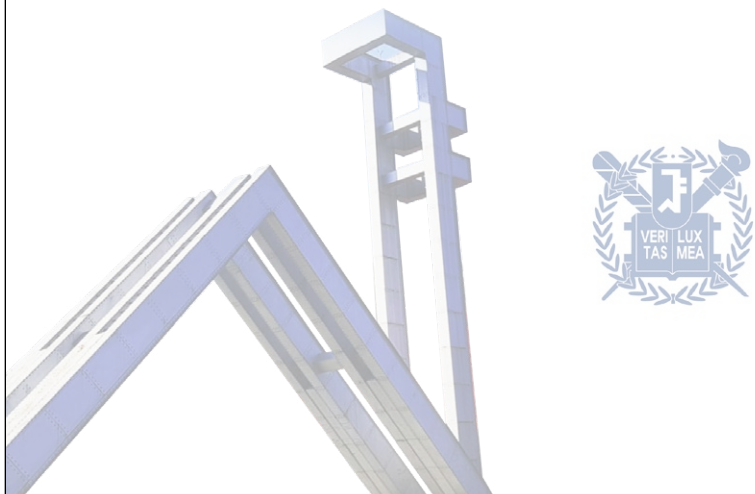


오세정
(서울대 총장)

최고의 지식공동체로서 그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서울대의 성장과 발전은 동문 여러분들의 모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주 동문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이야말로 서울대가 쉽 없이 전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모국과 모교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동문님들의 변함없는 용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울대의 빛나는 전통은 계승될 것이고 창조적 역사는 새롭게 쓰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미주 동문 상호간의 화합과 모교 발전의 역량을 결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동문 여러분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온라인납부방법

우측의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축.사

“‘서울대인’ 이름 하나로 단합할 때”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신용남 회장님과 노명호 차기 회장님!
동창회 임원 여러분과 미주 각 지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평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희범입니다.

제29차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미주동창회 평의원회는 지난 6월 제가 회장에 취임한 후 처음 맞는 대규모 해외 지부 행사입니다. 그런 만큼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COVID 19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한 도전이자 시련입니다.

뉴욕 타임즈 컬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코로나 전후의 세상을 BC와 AC로 명명하였습니다만 COVID 19는 분명 인류사회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주 동문과 동문님들의 변함없는 용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울대의 빛나는 전통은 계승될 것이고 창조적 역사는 새롭게 쓰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미주 동문 상호간의 화합과 모교 발전의 역량을 결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동문 여러분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미주동창회는 해외 지부 중 가장 먼저 설립된 서울대 재외동창회입니다. 미주 전역을 아우르는 광대한 네트워크와 활발한 친목 모임은, 다른 동창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991년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이어온 미주동창회의 노력에,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미주 동창회 여러분들은,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미국 땅에 거주하시면서도,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 굳게 단합해,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4월 DC지부에서는 코로나-19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닷새 만에 1만 5,000달러가 넘는 거액을 모아 마스크를 구입해 뉴욕의 의료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신용남 15대 회장님께서, 미주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미주동창회보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동문들의 뜻을 모으시고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평의원회도 원래는 '크루즈 선상 개회'라는 참신한 시도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소가 변경돼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동문들의 친목 제고와 동창회 주요 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위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오프라인 모임을 성사시키셨습니다. 신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신 회장님을 비롯해 윤상래 전 회장님과



이희범
(서울대 총동창회장)

각 지부 동창회장님, 동창회 임원들과 미주 동문 여러분 모두가, '서울대인'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단결해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해 나뉘는 뜻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해도, 동창회와 재미 한인사회에 공헌하신 동문 아홉 분께 드리는 표창패를 준비했습니다. 손대홍, 한귀희, 객준경, 이강원, 김병윤, 정평희, 한경진 동문님은 각 지부 회장으로 동문 화합을 위해 나뉘는 뜻을 다하고 솔선수범하여 동창회 발전에 기여 하셨습니다. 김권식 동문님은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서울대인의 이름을 드높이셨고, 홍종만 동문님은 뉴욕지부 골든클럽 임원으로서 동문 유대강화에 공헌하셨습니다. 미주 동문들의 업적은, 43만 서울대인 전체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실이 후배들의 결실로 이어져,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저는 앞으로 2년간 총동창회의 화합과 서울대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취미를 살리며 행복한 동창회, 서울대인으로서 자부심과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사회 저명인사를 모시고 매월 조찬강연회를 운영하겠습니다. 9월에는 국내 최고 코로나 바이러스 권위자인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고, 10월에는 성공관대 학교 최재봉 교수를 초청해 포노 사피엔스, 즉 스마트폰과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듣습니다. 11월에는 모교 김난도 교수가, 내년도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 특강을 합니다.

둘째, 등산, 바둑, 골프, 국토문화기행 등 각종 취미클럽을 활성화 합니다. 현재 각 분야별 회장 및 간사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환.영.사

“신회장님 리더십으로 성공적 행사를”

서울대 동문님들, 평의원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COVID-19 Pandemic을 다스리며 견디시느라 심신이 고달프시지요.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 미국에 산다고 생각했던 미주동문님들, 요즘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처럼 미국이라는 후진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저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는 말을 의지하며 견디다보면 COVID-19 위기도 속히 종식되리라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노명호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겨우시기 기대합니다.

지난 6월에 계획되었던 29차 평의원회의가 신용남 회장님의 두려움 없는 결단력으로 늦게나마 열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악화되어 뉴욕 - 뉴저지 방문시 자가격리의무 때문에 평의원회는 참석 못하고 화상 회의만 참석합니다.

비록 호텔 회의에 직접 참석하시는 평의원님들의 숫자는 적어도 회의 안전과 결정해야 할 사안은 예년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평의원 회의도 신회장님의 리더십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의원님들 모두 열심히 참여하시고 소통해 주셔서 동문회의 진로를 결정해주시고 또 좋은 회의록을 남

30차 평의원회는 2021년 6월 하순에 남가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무도 COVID-19 이 언제 종식되리라는 예측은 할수없지만 저는 내년 3월경에는 여행도 가능하고 내년 6월이면 호텔 컨퍼런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 6월에는 많은 미주동문들이 남가주에 모여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큰 파티를 열 계획입니다. 평의원님들과 미주 동문여러분, 모두 COVID-19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하이킹과 등산 많이 하시고... 아니면 틈틈이 시간나는 대로 산보하시고 건강하세요.

과 각 단과대학 회장단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관도 시대 정신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총동창신문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을 발굴·소개하고, 서울대인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이제는 단합입니다. 서울대인 모두는 하나입니다. 서울대인이 지구촌 곳곳에서 쌓은 빛나는 업적을 앞으로도 오래 이어가, 국경을 초월해, '서울대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귀를 크게 열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미주 동문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29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미주에 계신 동문 가족 모두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평의원회의의 성공적 개최 기원”

제 29차 미주동창 평의원회의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상근
(뉴욕지역 동창회장)

저희 세대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COVID 19 Pandemic 상태가 지속되는 현 상태에서 어렵게 평의원 회의에 참가하신 동문님들과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신용남회장님과 미주동창회 임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사실, 이번 평의원 회의를 위해 미주동창회는 선상회의를 개최하려 하다가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때문에 일차 변경을 하였고, 뒤늦게 서부와 남부지역에서 급속히 번지는 코로나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어렵게 본 회의를 확정하셨다고 이해합니다. 힘들게 개최된 이번의 평의원회의가 성공적으로 마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15선거 후유증으로 고국은 끊임없는 소요사태가 계속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마음 편하지 않음을 다들 바가 없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조국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서울대 동문 모두가 기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문님들도 코로나 Pandemic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계시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힘들게 평의원회의에 참가하신 동문님께서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미주동창회가 성공적으로 본 화합을 무사히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축.사

“미주·호주 동창회 교류의 기회로”

서울대 미주평의원 및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총동창회장 김정인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하며, 미주 동창회의 자부심인 제29차 평의원회의를 뉴욕에서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김정인
(호주 총동창회장)

매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7,200부가 미주 전지역의 동문들에게 전달된다니 미주 동문회의의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제 15대 미주 총동창회 신용남 회장님과 임원단의 노력으로 제 29차 평의원 회의가 성황리에 개막되어 성공리에 마치게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미전역 동문들의 교류와 친목이 더 한층 돈독해 질 것이며, 서울대인의 긍지를 살려, 학생때의 뛰어난 수재였다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지역 사회 참여와 봉사로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여 미국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동창회에서는 내년 호주 시드니지부 동창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동문지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에도 100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미주 동창회와 호주 동창회가 서로 연계되어 동문간의 교류가 이루어 질 것을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미주 전지역 동문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a.org



초청강사로 나선 하버드대 김광수(왼쪽에서 7번째) 교수와 함께한 참석자들

역사상 첫 온-오프라인 연결 동시개최 ‘성공적 도전’

한국-호주-미 전역 의원 참여 열띤 회의

제29차 미주 평의원 회의가 지난 8월 21일에서 23일까지 NJ 포트리 Double Tree Hotel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비드 규제로 예년 120여 참석인원에서 줄어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하지만 전 행사일정을 유튜브 라이브 방영, Zoom 등 온-오프라인으로 전 미주는 물론 한국과 호주까지 연결, 전세계 서울대동창들이 함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울대 동창회 발전방향을 나눈 특별한 대회가 되었다. 이번행사는 미주동창회가 첫 시도한 회의형식으로 Covid-19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기도 했지만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성공적 평의원 대회로 기록될 것이다.

미주동창회 신웅남 회장은 환영사에서 “미주 동창회의 연례회의가 역대 회장단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개최해왔다. 한 사회와 국가가 자랑하는 문화를 세워가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가꾸고 쌓아올린 전통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미주 동창회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통한 정부의 방역 지침

을 준수하며 이 대회를 개최하였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1일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하버드대 세계적 석학 김광수 교수와 일리노이대 김주형 교수가 참석, 각각 ‘맞춤형 줄기세포치료 어디까지왔나’와 ‘로봇은 인간을 닮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동문에게 현재 주목받는 분야의 핫이슈를 전달했다. 이어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한반도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오인환, 백순, 이항렬, 류재풍 박사, 그리고 민병갑 교수, 정태영 논설위원이 참가, 열띤 토의를 펼쳤다.

다음날 22일에는 1차년도 브레인네트워크, 홍보 편집위원회 등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 연영제 15대 사무총장 인준이 있었다. 특별히 온-오프라인으로 이어진 평의원 투표로 각 지역 지부분담금 조정, Century Foundation 기금 손재욱 위원장 추대 등 중요한 사안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그동안 서울대가 국



신웅남 미주동창회장

가발전에 기여해온 주요 인재를 양성하고 소중한 지식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공동체로서 그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러한 서울대의 성장과 발전은 동문 여러분들의 모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미주 동문의 헌신과 사랑이야말로 서울대가 힘없이 전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화상으로 참여한 이희범 한국 서울대 총동창회장은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1991년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이어온 미주동창회의 저력에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며 신웅남 미주동창회장을 비롯해 미주 동문 모두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전했다.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한 호주총동창회 김정인 회장은 평의원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로 모교의 위상을 높이길 기원했다.

이어 오세정 총장 공로패가 손재욱(13대 회장) 외 3인에게, 이희범 총동창회장 표창패가 이강원(전 지부회장) 외 8 동문에게 수여되었다.

서울대 음대 후배동문들의 음악회는 21일 전야제, 22일 환영만찬에서 공연되었다. 21일 전야제에서는 후배 동문들의 트리오 콘서트(김희은, 서지원, 장현주)로 행사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22일 축하만찬은 곡상희 원로시인의 축시와 오페라 갈라콘서트로 장식되었다. 김성욱, 유영광, 김희재, 김기웅 남성 4중창의 유려하고 힘찬 보컬이 이 대회의 성공을 전세계에 알리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영화속에서의 스타트 장면의 대역에서부터 물류창고와 공장 등지에서 인간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아 인간의 삶에서 더욱 더 큰 역할을 다가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세미나의 형식을 빌어 참석자와 시청자들의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군사용 혹은 무인자동차 등으로 사용될 로봇에 대한 미래를 함께 토론 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② ‘세계적 석학’ 김광수 교수-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 어디까지 왔나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과정과 희망>

두번째 세미나 강연자로 나선 하버드대 김광수 교수는 항상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 논문 등을 발표해왔지만 대중들, 특히 동문들 앞에서 자신의 연구를 전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첫 인사말을 전했다. 김광수 교수는 생물학자로서의 ‘세포 운영개조론’을 역설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매일 도전하는 삶’을 살고있다”며 “도파민의 생성과 죽음을 연구하고 그 세포의 역할을 조절하는 연구를 지난 30년간 이어오며

해당연구의 중심에 서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포치료’를 통해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길을 열고 있는 김 교수는 기존의 배아세포를 통한 세포재생의 방식이 아닌 성체세포의 운명을 되돌려 자신의 세포를 새롭게 하는 Re-Programming 방식의 IPS 기술을 통한 치료법을 연구 진행 중이다. 연구비의 삭감으로 어려움을 맞기도 했던 그의 연구는 한 투자자이자 환자였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빠른 속도를 내게 되었고 2017년에는 그 환

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성과를 갖게 되었음을 전했다. 2015년 첫 논문을 발표하고 2017년 첫 수술을 성공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임상 1상, 2상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청중들과 함께 나누면서 파킨슨 병의 극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비록 지금은 단 한 명의 환자 밖에 치료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10명의 환자를 더 치료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서 전세계의 많은 환자들을 적은 비용으로 빨리 치료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패널토의 - 한반도의 미래를 말하다



오인환 박사



백 순 박사



이항렬 박사



민병갑 교수



류재풍 박사



정태영 위원

첫날 세번째 순서인 패널토의는 오인환 박사의 진행으로 6명의 패널위원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각각의 전문 분야를 통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항렬(법대 57) 전 세프드대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 이항렬 박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현재 공통적으로 전체주의(Authoritarian or Tyranny)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두 나라 대통령 모두 국민통합보다 정권유지를 위해 노력할 뿐이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대통령의 경우 참다운 진보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주택시장 실패, 삼권분립 무시, 친북-친중정책은 물론, 헌법재판관을 친정부 판사로 채우고 공수처 설치로 검찰총장을 무력화 하는 등 비자유시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책들을 극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몰며 인종주의적, 국민편가르기, 인기영합주의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박사는 현재의 한/미 민주주의가 독재, 전체정치로 퇴보하고 있음을 걱정하며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지도자의 현명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백순(법대 58) 전 미연방정부 노동성 선임 경제학자 / ‘한반도 미래 경제 시나리오’ 백순 박사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현 민주당은 반기업규제법을 통한 차별독재 멸망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한 부동산 재벌에 대한 탄압 등은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박사는 “현 한국정부의 복지제도 또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살아야 한다는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공산국가와 가깝다. 북유럽 복지국가와는 다른 중국의 혁명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자본주의 모습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외에도 반국제주의, 미중무역전쟁, Supply-Chain Change, 소비회복, 증권시장, 경제정책 등을 한국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류재풍(법대 60) 전 로열라대 사회학과장 /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사회학적 전망’ 류재풍 박사는 “21세기는 미, 중 대결상황이 흘러가는 방향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가운데, 한국은 친중이 아닌 친미로 돌아서야만 할 것이다”며 한미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21세기 세계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의 특세가 눈에 띄는 듯 했지만 트럼프의 등장으로 중국의 지위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이다. 앞으로 10년간은 미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수그러들며 2030년까지는 미-중 구도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런 세계적 정세 속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유토피아를 찾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살고있는 나라가 어

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유와 평등, 의법통치, 풍요롭고 평안한 나라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갑(문리63) 현 뉴욕퀸즈대 사회학교수/한반도미래를 위한 미주한인의 역할 민병갑 교수는 패널로 참여하게 해준 오인환 박사, 신웅남회장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35년간 미국 이민에 대해 연구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한인동포가 모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어떠한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민 교수는 “2000년대로 들어서며 주류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한인동포들이 전쟁범죄의 역사를 부인하는 일본의 사죄를 이끌어내기위해 미 학자, 정치단체와 협력해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높아진 한류문화의 위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문화 브릿지 역할 또한 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남북관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미주 한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태영(문리71) 논설위원 / ‘한반도의 역사적 고찰과 전망’ 정태영 논설위원은 한반도 전망에 대해 “당분간은 분단시대가 지속될 것이다”며 남한의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젊은층의 무감각적인 반응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국가의 소수민족이 지속적으로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는것처럼 국가를 지탱하는 국가주의는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며 로컬 커뮤니티의 자치를 인정하며 국

가 대신 세계정부로의 변화를 예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반도의 전면전은 없을 것이며 한반도 남북 경정은 하드파워(핵, 군사)에서 소프트파워(소셜네트워크 등)의 경쟁과 공존으로 갈 것”으로 내다보았다.

■오인환(Moderator/ 문리 63) Leadership and Group IQ Institute대표/ 한반도미래를 위한 4차 산업혁명과 집단지성 오인환 박사는 열강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한반도는 High Tech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도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술 선진국인 미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며 “한국이 주위 열강의 HUB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의 집단지성 측면에서는 대기업, 스포츠경기, 예술분야에서는 성공적으로 보이나 정치현상은 전략적이지 못하고 국가발전을 크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국가이익 차원에서 생각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전략에 치중하고 과거지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실정법을 뛰어넘는 정서법을 이겨낼 법치사회를 위해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진행중인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 미, 서방 vs 중국기술 패권 경쟁에 따라 IT강국 한국에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안보위협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화웨이의 미 시장 퇴출에 따라 삼성에 기회가 오히려 오히려 기술의 발전 등 한국의 IT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첫째날 - 세미나 및 패널토의

①김주형 교수- 로봇은 인간을 닮아야 하는가



8월 21일에 열린 제29회 평의원회의 첫 행사로 일리노이대 학 김주형 교수의 세미나가 열렸다. 김주형 교수는 서울대-삼성전자-카네기멜론대학교-디즈니를 거쳐 현재 일리노이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 교수는 ‘노동하다’의 어원에서 출발한 ‘로봇’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상을 바꾸는 과정을 연구에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을 토대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서울대에서 처음 2축보행 로봇을 개발했고 삼성전지에서 휴머노이드를 개발했

으며 로봇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카네기멜론대학에서 활동을 하다가 디즈니 연구소에서 이미 만들어진 캐릭터들을 로봇으로 구현해 나가는 과정(애니메트로닉스)을 맡게 되었다”며 “특히 디즈니의 ‘베어와’ 프로젝트를 맡아 캐릭터들의 움직임을 보다 더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종 모션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넘어 실제 로봇으로 제작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게 되었으며 각종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이 기술을 통해 디즈니의 테마파크의 인형들과 움직이는 캐릭터들을 구현하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에서 새로운 캐릭터 로봇으로 대중들과 만날 수 있게 될 예

둘째날 - 환영사 및 사업보고

제28차 평의원 회의 둘째날 행사가 22일 토요일 오전 진행되었다.

연영재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교가 제창이 있었다. 이어 성원보고에서는 전체 평의원 수가 85명, 현장 참가 평의원수는 16명, Zoom으로 참석한 인원이 25명, 프록시(대의원) 12명, 합해서 53명이 참석해 정식으로 개회가 선언됐다.

연됐다.

신응남 회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온라인을 통해 전세계 많은 동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국의 43만 동문과 해외 동문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는 "연료한 동문들을 초대하기에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지만 29차 평의원회의의 연속

개최가 큰 의미를 가질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자리에 함께한 분들께 감사함을 전했다.

노명호 차기회장은 축사에서 29차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며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손재욱 13대 미주동창회장은 "신응남 회장과 임원분들께서 온-오프라인 2중

으로 애쓰는 모습과 실수없이 진행되는 과정을 인상깊게 지켜보았다"며 "이 또한 다른방식의 회의가 될수 있을것 이란 고무적인 생각을 하게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8차 회의록 낭독은 시간관계상 생략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을 담아 간략하게 요약한다.

제1차년도 사.업.보.고



이강원 위원장



조화연 위원장



이희만 편집고문



백옥자 광고국장



김병연 위원장

■브레인네트웍 위원회(이강원 위원장)

두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첫번째로는 작년 모교 73주년 개교기념일을 기해 브레인네트웍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신응남 회장의 초청으로 직접 이구형 박사, 최윤 박사, 김광수 교수와 함께 모교에서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어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김광수 교수님을 또 한번 초청해 수준높은 강연을 동문들에게 소개했다.

계획은 내년 3월 봄방학을 기해 보스턴 또는 뉴욕에서 특별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 여러 동문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회보 편집위원회(이희만 편집고문)

2019년 7월부터 1년간 총 123명의 필진이 동문회보에 글을 기고 했으며,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8명의 동문이 특별인터뷰를 통해 소개되었다. 편집부에선 각 지역 동창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동향과 활동을 다루기 위해 힘써왔다.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모임까지 균형있게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 특별히 각지에서 기고해 주신 글들이 많아 해당 월 발행분에 모두 실을 수 없을만큼 큰 호응을얻기도 했다. 그리고 6.25, 광복절 등 특별한 데마를 정해 그달의 이슈에 대해 기고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전해드리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두루 담아 동창회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편집팀은 동문서주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경제 분야 처럼 무게감이 있는 글들은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또한 젊은 동문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 주목되는데, 고무할만한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참여로 좀더 세롭고 역동성 있는 회보로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동창회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초 모든 동문들에게 신문이 전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신기위함이라 해도 때 늦은 신문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기에 편집마감을 맞추는 일이야말로 편집부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출력 및 배송작업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지만 보다 더 빨라진 배송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효율을 높여 동문들은 제 때에 동창회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은 정보와 컨텐츠로 동문들을 연결하고 시대와 사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창회보가 되기위해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할 때이며, 진화되는 동창회보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

■회칙위원회(조화연 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모두 2차의 이메일을 통한 정기 회의를 가지고 지난 6월 2일에 제2차 정기 회의를 마쳤다. 한 일은 본 위원회가 전 회기 4차 회의(2019년 5월6일)에서 결정하여 지난 28차 평의원회의에 토의를 건의하였지만 시간이 없어 토의 결정하지 못한 사항을 재검토 하여 결정한 것과 회칙위원회 세칙에 명시된 위원수 7명을 "7-9 명"으로 개정한 것과 차기회칙 위원장에 김병연 (공대 68) 위원을 선출한 것이다.

28 차 평의원회에 토의를 하려고 했지만 못해서 이번에 재검토하여 토의를 건의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모두 7개의 큰 의제가 있었는데 첫 두 의제는 그 동안 없는 줄 알았던 우리말 회칙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생길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고 다음의 다섯 의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아직 평의원회에서 토의 결정 되지 않아서 앞으로 상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다.

첫 의제는 한/영어회칙 개정, 둘째 의제는 영어 회칙과 한국어 회칙의 의미가 상충될 때에 어느 것이 우선이 될 것인가. 셋째

의제는 미주 동창회와 미주 발전기금과의 법적인 관계 정립 및 역할에 대한 검토. 넷째 의제는 각 지부의 IRS Rule 에 따른 의무 및 미주 동창회 역할/책임 범위 인데 회칙에 의하면 이 것은 근본적으로 각 지부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이 문제는 과거 수년 동안 많이 정비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는데 면세혜택이 취소된 지부가 좀 있지만 회장단이 해당 지부에 알려져 그 지부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회가 생각한다. 다섯째는 미주 동창회 업무 수행 시 벌어질 수 있는 Liability 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 여부 검토 (자금 관리에 대한 Officers negligence-misappropriate 부분 포함) 인데 본 위원회의 견해는 Liability Ins.가 있으면 좋겠으나 예방 차원에서 외부 감사를 받도록 (maybe every 2 or 4 years)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만 경비가 문제 되어 비용 대 효과를 고려하면 아직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는다.

여섯째는 회장 취임 시 동창회 회칙에 대한 선서 절차 (대통령 취임 시 헌법 준수 선서하는 것처럼) 도입여부인데 이 절차는 회칙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공식의견이다. 소수 의견은 회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회순으로 좀 실시해 보고 회원들이 좋아하고 원한다면 관행으로 할 수도 있다.

일곱째 의제는 평의원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Quorum)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애로로 감안하여 정족수의 하향조정 방안 검토인데 본 위원회의 공식의견은 정족수 때문에 평의원 회의를 소집할 때에 임원진이 걱정을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proxy를 포함하여 60%+ 의 참여율을 기록해온 기록에 비추어볼 때 아직은 정족수를 하향 조정하기 보다는 어떻게 참여를 더 장려 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소수 의견은 정족수 확보의 애로가 심하여 꼭 필요하다면 회칙을 약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평의원의 종류를 현재의 3 종류로 두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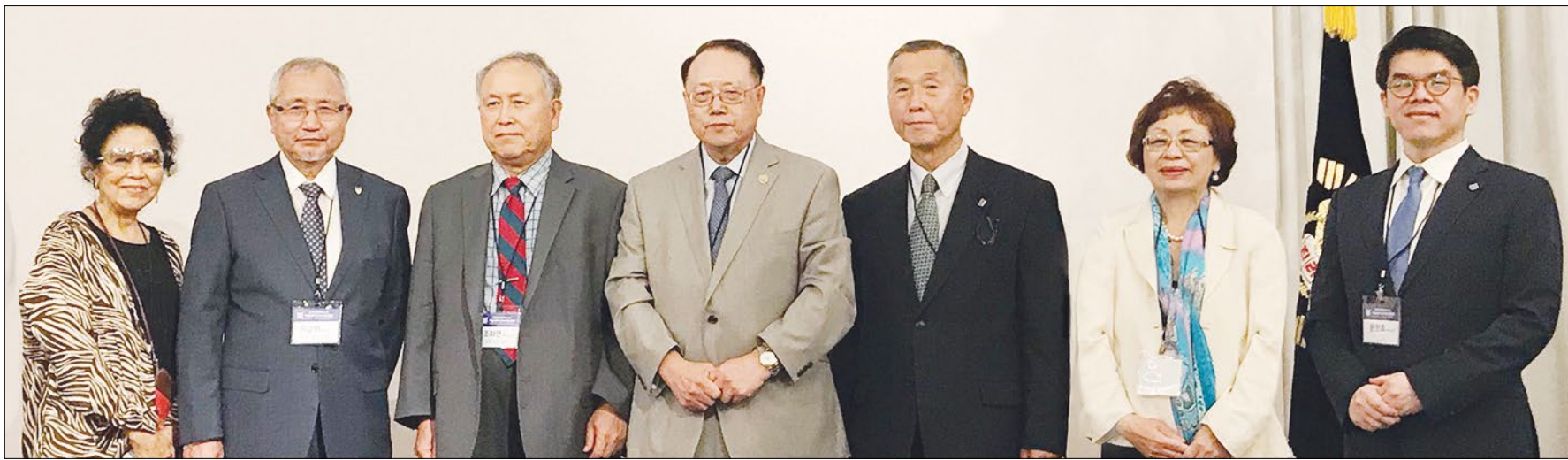
A. 본부 평의원 - 본부 임원들
B. 지부 평의원 - 당연직, 선출직
C. 전미주 평의원 - 전직 회장, 종신 이사, 전미주 단과대학 동창회장으로 하고, 의사정족수(Quorum)는 본부 평의원과 지부 평의원을 합한 수의 3 분의 1로 한다. 참석하는 전미주 평의원은 의결 정족수(Quorum for Resolution)의 출석 인원내 가산한다. 마지막으로 평의원 자격에 관한 문제인데 때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가 생길수록 있고 그때 마다 위원장에게 평의원 자격을 주기 위해 amendment 를 add 하는 것 보다. '모든 위원회 위원장(한국학 위원장 포함~~이는 27 차 평의원회의 때 관제 임원이 주장)과 국장급의 집행부 임원은 자동 평의원이 된다(현재 관행으로 하고 있음)을 Amendment 8 에 add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회관건립위원회(김병연 위원장)

본 회관건립연구에 관한 건은 지난해(2019년) 제 28 차 평의원 회의 때 발표한 바와 같이 미주동창회관의 필요성 여부 재검토, 회관의 위치 선정, 예산, 운영방법 등 이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진 동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 동창회에서도 규모에 따라 각지부동창회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미주 동창회 회관 건립은 각 지역 동창회의 회관 건립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눔위원회(황선희 위원장)

사업제목: 아가페 노숙자 선교회 (New Haven, CT) 보조 사업내역: 2002년 New Haven, CT 에 설립되어 CT동창회 지부 동문이 중심이 되 노숙자 돕기, 한국 노인 /한자 돕기 사업을 하는 선교회와, COVID 19 사태 이후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나눔위원회 사업 취지에 맞아 위원회 예산으로, 접수된 대로 재정보조(\$500)를 하였다. (8월 3일, 2020년)



제 15대 미주동창회 임원들. 왼쪽부터 광상의 고문, 이강원 위원, 조화연 위원, 신응남 회장, 연영재 사무총장, 이희만 고문, 문현호 국장.

■특별사업위원회(백옥자 광고국장)

2019년 10월 서울대 73주년 개교기념 및 50주년 미주동창회 행사 참석을 위해 총 6개 지부 33명의 동문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10월14일 호암 교수회관에서 글로벌 인턴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브레인네트웍 행사를 진행, 총 200여명이 참석한 큰 대회가 되었다. 10월16일부터 3일간 서해

관광이 있었다. 또한 서울대 규장각과 도서관도 방문하였다.

■특별사업보고(신응남 회장)

2019년 6월 22일 역사적인 카네기 축하 음악회가 쉐켈홀 600석을 가득 채우고 성대히 개최되었다. 자세한 보고는 바인더 27, 28, 29 페이지 서면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선례 문화국장 보고

한국의 모교 국악과 초청연주회를 미주동창회 주최로 열고싶다.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완화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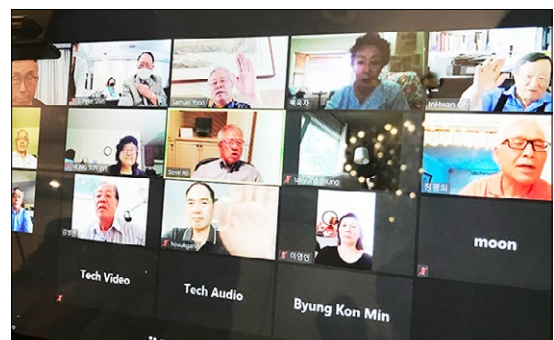
만일 이 사태가 길어지면 무대에서의 연주 상황을 화상으로 공개하면, 미 전역과 한국 등에서 관람할 수 있어 더 보람 있을 것이다.

■ SN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신응남 회장)

지난 14대까지 76분의 종신이사비를 인계 받았고, 이번 15대 임기 1차년도에는 17분의 종신이사님의 이사비와 카네기 순이익금 6천여불이 적립되었다. 종신이사 임명장을 제작하였고 발송을 앞두고 있다.



Fund 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손재욱 전 회장



■재무보고=한경진 재무국장

한경진 재무국장의 부재로 이지희 간사가 재무보고를 진행했다.

■제15대 1차년도 감사 보고 = 김명송

마이너하게 미흡한 상황으로 인해 감사보고서를 다음으로 미뤘다.

■기타토의안건= 조화연 회칙위원장

1. 한글과 영문회칙 개정안
우리말 회칙과 영문회칙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개정할때마다 한영 모두를 개정해야하는지 안전 상정. 회칙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영문만 하는 동의안을 냈다. 소수의견으로 한글도 같이 개정하더라도 이다. 하지만 한글도 같이 개정하자는 개의가 있어 투표를 진행한 결과 대회 참석자 9명과 온라인 참석자 8명, 총 17명이 찬성하여 한영 동시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한,영을 동시에 개정하더라도 영어를 우선으로 한다는점에는 변함이 없음이 거듭 부연되었다.

2. 각지부의 IRS룰에 따른 의무 및 미주동

창회의 역할

회칙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각지부가 책임져야할 역할로 되어있다. 하지만 면세혜택이 취소된 지부는 미주동창회에서 IRS 문제에 따른 '표준 양식'을 제작해서 지원해야한다는 소수의견에 따라 안전에 상정하였지만 다양한 의견의 게재로 이 안전은 다음으로 넘기기로 했다.

<오후 세션>

첫번째 순서로 연영재(공대 73학번) 사무총장 인준이 있었다. 연 사무총장은 "1년 남은 임기동안 각지부를 잘 연결하여 최선을 다해 미주동창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현장 평의원 9명과 Zoom 참석 평의원 10명으로 합쳐 19명으로 인준이 가결되었다. 이어 신응남 회장은 2년차 중점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26개지부 동창회 방문, 새동문 영입 지속, 회의 시 영상매체를 통한 각지부 참여 유도, 지부 장학사업 및 세미나 개최 행사 지원,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지속, 15대 임기 회보 기념집 발간, 재정자립을 위한 Century Foundation 3백

만불 모금 활성화, 각 분과 활동지원, 유기적 관계 유지 및 공조 등이다. 또한 2차년도 예산 수입을 \$257,300로, 예산 지출을 \$260,600으로 책정하였다. 15대 2차 임기 중점사업과 예산안 제출안에 현장 평의원 12명, Zoom 참석 평의원 12명으로 총 24명이 동의하였다. 이어 미주동창회 임원소개 후 필라델피아 지부 지흥민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지 회장은 지부분담금 1,500달러를 1,000달러로 삭감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미주동창회에서 각지부 회보 발송수, 회비납부 동문수 대비 전체지역 분담금을 조정하였고,

필라는 1,200달러로된 조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몇분의 발언을 통해 시카고 지부의 분담금이 다시 전과같이 유지되고, 필라지역이 청원서대로 1,000달러로 하향조정되는 개의안이 상정되었다. 이에 현장 평의원 10명, Zoom 참석 평의원 11을 합산한 21명의 찬성으로 지부 분담금 개의안이 가결되었다. 다음순서로 신응남 회장이 손재욱 전 회장을 Centural Foundation Fund 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안건으로 냈으며 현장 8명, Zoom 12명, 총 20명으로 손재욱 전 회장이 선출되었다.

지부 회장단 회의 및 활동 보고

▲남가주- 민일기 회장

1. 2020년 2월1일 총회 회장 이 취임식
2. 세미나 개최: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매달 세미나를 개최, 현 4회째 세미나를 치렀으며 3회의 세미나가 추가로 예정되어 있다. 평균 4~50여명이 모이는 상황.
3. UC LA 김동석 명예교수 (남가주 지부 전 회장)의 한국음악 세미나 9월 25일 개최 예정.
4. 은퇴준비에 관한 재정관리 세미나와 토론을 11월까지 매달 Zoom진행.
5.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야유회 개최 희망.

▲북가주- 임준원 회장

1. 북가주 지역은 코로나 사태와 함께 화재로 인한 연기문제가 심각한 상황
2. 예정되었던 골프대회, 피크닉, 하이킹 행사들이 취소.
3. 강정수 이사장의 10월 강연 준비 중
4. 12월 연말파티 행사는 상황을 보고 개최여부 결정.
5. 스태프팅은 매월,격월로 진행 중.

▲뉴잉글랜드- 김정선 회장

1. 뉴잉글랜드지부 웹사이트 개발중.
2. 매달 다양한 출신의 강사 초청으로 포럼 개최.
3. 산우회, 갤러리, 장학금, 후원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공유.

▲미네소타-송세진 회장

1. 6개월간 모든 행사 취소.
2. 강사 초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 예정.
3. 예산에 맞게 대부분의 회비는 확보.
4. 대학원 등 젊은 그룹이 모임 수 있도록 재정지원 예정.
5. 장학금 모금 순항, 2명 선발 후 \$1000 씩 지원 예정.

▲커네티컷-유시영 회장

1. 악천후 및 코로나로 인해 각종 회의 취소
2. 이메일을 통한 박용해 총무를 부회장으로 임명, 내년 회장 선임.
3. 인수인계에 관련된 지침을 본회에 서 지부로 전달 요청 <8면서 계속>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이희범 한국 총동창회장



김정인 호주동창회장

<오후 세션>

신용남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마지막 행사에서는 오세정 총장을 비롯한 여러 회장 단에서 인사 메시지를 전했다. 노명호 차기회장의 축사와 조상근 뉴욕지부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이희범 한국 총동창회장과 오세정 총장이 한국에서 직접 녹화된 메시지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특별히 이희범 한국 총동창회장은 화상회의에 직접 참석, 미주동문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호주동창회 김정인 회장도 화상회의에 들어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공로패와 표창장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서울대총장 공로패 수상자는 오홍조(치대 56), 손재욱(가정 77), 윤상래(수의대 62), 워싱턴 DC지부를 대표로 손재욱 전 회장이 수상하였으며 이희범 총동창회장 표창장은 손대홍(미대 79), 한귀희(미대 68), 박준경(법대 75), 이강원(공대 66), 김병윤(문리 65), 정평희(공대 71), 한경진(상대 59), 김권식(공대 61), 홍종만(공대 64)을 대표로

이강원 위원장이 수상했다.

다음 순서로 이만택 서울대 미주재단 이사장의 서울대학교 소개 및 발전기금 소개와 전임 미주회장단의 축하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상희 동문 시인은 격정적으로 축시를 읽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마지막 순서로 음대 후배 동문들의 화려한 오페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축하 음악회>

제 29차 평의원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음악회가 8월 21일과 22일 밤 양일간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음대 동문 9명이 참석해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21일 트리오 콘서트에는 김희은(바이올린), 서지원(첼로), 장현주(피아노) 동문이 함께 무대에 나서 탱코의 거장 아스트로 피아

<7면에 이어서>

▲ 워싱턴 DC - 정평희 전 회장

1. 2019년 장학생 11인에 장학금 지급
2. 회기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
3. 공적 모임에서의 여성비하 발언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될 것.
4. 젊은 세대와 연대하기 위한 기성세대의 에티켓이 준비되어야 할 것.

▲ 뉴욕 - 신용남 회장 대리 보고

1. 10월7일(수) 뉴욕동창회 추계골프대회 개최
2. 12월5일(토) 뉴욕동창회 송년회 및 총회

▲ 필라델피아 - 지흥민 회장

1. 7월 후부터 새 임원들의 활동 개시.
2. 회원정보 재정비 작업 프로젝트.
3. 송년파티 시간을 앞당길 예정.

4. 지부기를 다시 제작 중.
5. 젊은 인재 영입을 위한 전략이 절실한 상황.

▲ 시카고 - 장윤일 회장

1. 관악클럽및 관악연대 모임 매달 개최중.
2. 음악, 독서, 미식가, 볼링댄스, 골프 등 동아리 활동 중단.
3. 장학금 증액과 함께 장학사업에 비중을 두고 활동할 것.

▲ 건의사항 및 기타의견

1. 젊은세대 참여문제에 대한 의견:
- 2달에 1회 젊은 그룹 모임에 저녁식사비 제공
- 2000학번 이후 동문들과 모임 시작 후 30명으로 성장
2. 젊은 임원 임명으로 참여 확대된 사례 공유

줄라(Astor Piazzolla)의 대표 명곡 리베르 탱고(Libertango)와 그의 또 하나의 걸작인 망각(Oblivion), 비토리오 몬티(Vittorio Monti)의 차르다시(Cards) 등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악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오페라 갈라 콘서트로 꾸며진 22일 밤 음악회에서는 테너 김성욱, 바리톤 유영광, 테너 김희재, 테너 김기웅 동문이 차례로 무대에

<문현호 총무국장>

화보로 보는 제 29차 평의원 회의

Aug. 21~23, 2020 /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NJ



<왼쪽부터> 신용남 회장, 최형무, 이희만, 연영재, 김광수, 이강원 동문.



<왼쪽부터>이성숙, 조화연, 지흥민, Mrs.지흥민, 손재욱 동문.



<왼쪽부터>김대희, 오성, 유규환 동문.



<왼쪽부터>박상희, 장수영(가운데), 이강원, 박재은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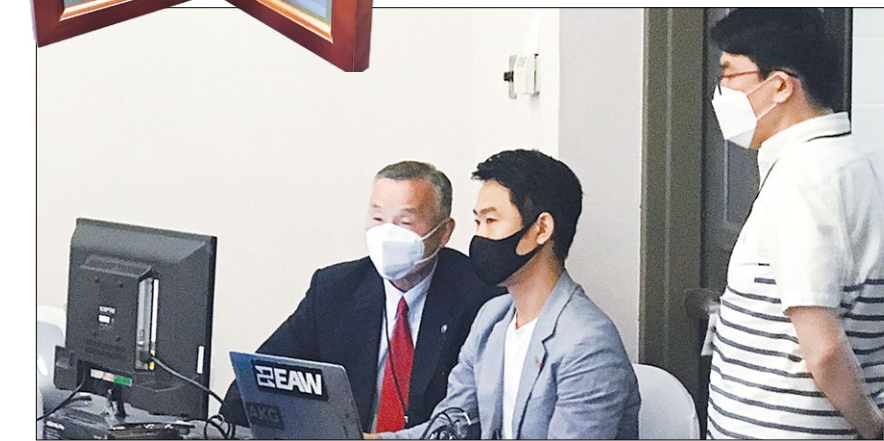
<왼쪽부터>연영재, 이종권, 김광수 동문.



문현호 동문 커플.



손재욱(13대 회장, 왼쪽)동문에게 오세정 총장 공로패를 수여하는 신용남 회장



▲최고의 호흡을 선보인 영상 진행팀.



◀참석자에 열체크를 하는 행사 진행팀.

▼트리오 콘서트(김희은, 서지원, 장현주)



이강원(전 뉴잉글랜드 회장) 동문이 이희범 총동창회장 표창장을 받고있다.



부인이 다리를 다쳐 걷기도 불편한 몸으로 필라에서 참석해준 지흥민 회장 부부.



축시를 낭송하는 박상희 동문시인.



축하 오페라 갈라 콘서트 4중창(왼쪽부터 유영광, 김성욱, 김희재, 김기웅)



곽상희(문리 52)
계관시인/ 올림포에트리 시인

서울대여, 자유와 진리의 용사여

/ 축 시 /

가슴 마다 시푸르게

꿈꾸는,

진리의 열망,

정의와 헌신의 관악산

그 뿌리,

고요한 아침의 창세기

우뚝 선 나라

여기 미주대륙 아름다운 무궁화

활짝 피었다

꿈의 우람한 한바다를

건너 그대 아름답고

위대한 학문의 수풀 온 세계로 뻗었다

무지의 광야 목마른 사막

꿈꾸는 고도를 휘둘러 품어

그대 진실한 배달의 투혼

그대는 시대의 용기로운 탐조등

시공을 넘어 피어나는

거룩한 진리 자유와 평화를 위해

진실의 넝쿨이여

고통하는 지구를 품에 안고

하늘 끝 오르고 뻗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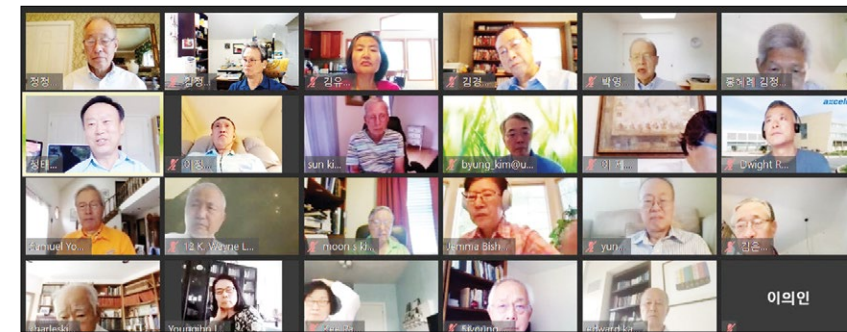
공지와 문화의 뿌리

미주 서울대여!

NE 동창회 광복절 특집 포럼

정태영 논설위원, 한반도 향후 전망 평가

이제봉 동문,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분석



지난 8월1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정선, 문리 66)의 두번째 온라인 포럼이 열렸다. 특별히 광복 75주년을 맞아 애국가와 함께 시작된 8월 포럼에는 워싱턴DC, 시카고, 뉴욕 등 타 지역 동문을 비롯한 35명의 동문 및 한인 교민들이 참석하여 포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광복절 특집 포럼의 첫 강의를는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인 정태영(문리 71) 동문의 '8.15 빛과 그림자였다. 정태영 동문은 이날 강의를 통해 지엽적인 분석을 지양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해석하였다. 정 동문은 8.15 해방을 전후하여 한반도가 두 국가로 나뉘어 분단시대에 접어들었고, 정치체제 측면에서는 해방 이후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국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조명했다. 또한 지난 5000년 동안의 신분시대를 끝내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자본주의,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인 공산 사회주의 및 사회경제체제가 도입된 시기였음에 주목했다. 세계사적 차원에서 한반도가 아시아 주변국의 영향을 벗어나 서구 열강의 영향을 직접 받기 시작한 전환점이었으며, 결론적으로 1945년 8월 15일을 전후한 사건의 전개는 반만년 한반도 역사에서 획기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여전히 강대국 간 경쟁과 한반도 내부의 남북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전망을 조망해 보기도 하였으며, 더불어 사관(史觀)을 가지고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역사를 해석하는 이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뒤이어 보스턴 지역에서 20여 년간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프리미엄리얼티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 이제봉(공대 72) 동문의 강기가 이어졌다. 2차 대전 후 70여년간 미 전역의 주택 가격 변동 상황과 그와 함께 나

타나는 주택 정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강의 주제인 '언제 집을 사야 하나'에 대한 답변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은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지 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9월 16일 오후 7시에 열릴 다음 포럼에서는 김은한(의대 '60) 박사가 '고선지 장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고 장군과 그를 둘러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선사한다. 뉴잉글랜드 포럼은 동문은 물론 관심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열려 있다. ZOOM 포럼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메일(snuane@gmail.com)로 참여 신청을 하면 링크를 받을 수 있다. 김정선 회장은 "예기치 못한 COVID-19로 비대면 모임이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이 매우 고무적이며, 특별히 버몬트(Vermont)에 거주하시는 김정환(공대 52) 선배님의 참여를 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각 지역 서울대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제공=양나래>



시카고 동창회 골든클럽 월례회

화상회의 18명 참석... 오봉완, 김영 동문 발표

서울대 동창회 은퇴한 동문모임인 골든클럽(회장 연경자/약대 69)이 월례회를 줌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제1차는 7월 2일에 있었고, 오(조)봉완 동문이 "위험한 여자"라는 제목하여 김일업 스님의 젊은 시절에 대하여 강의와 파워포인트 발표를 했다. 제2차 Zoom 회의는 8월 6일 아침 10-12에

열렸는데 18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 동문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발표했고 음악도 들려주었다. 제3차, 9월 3일 (목요일) 에도 줌으로 모임 것이며 치아 건강과 일반건강의 관계 즉, "Longevity and Oral Care," 에 대하여 소진문 (치대 62) 동문이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영기 (약대 41)



김영기(약대 41) 동문이 지난 7월 22일 소천하였다. 하관예배가 8월 4일 Covina Hills에 위치한 Forest Lawn에서 거행되었다. 고 김영기 동문은 1946~1950년 서울대학교 약보관국에 근무하였고 그 후 풍문여자 중교에서 화학교사를 역임하였다. 남문주 식회사(1958~1962)를 설립, 남문빌딩을 세운 후, 도자기공장, 백십자약국(1962~1995) 등을 경영하다가 1995년 미국으로 이민오게 되었다. 슬하에 5남매를 두었고 김옥권(미대 76) 동문의 부친이다.

(고) 윤용구 (공대 53)



윤용구(공대 53) 동문이 지난 6월 28일 소천하였다. 입관예배가 7월 6일 Norwalk에 있는 한국 장의사에서 있었다. 윤용구 동문은 서울공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동두천에 있었던 미 7사단 건설기술자 등 여러 건설회사에서 일했다. 1986년 도미, 파트너십으로 미국 USPS 각 지점과 1년 동안 영선계약을 운영하다가 독립, 은퇴했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윤재우(공대 83)씨도 서울공대 건축과 동문이다.

(고) 유성모 (미대 82)



유성모(미대 82) 동문이 숙환으로 8월 14일(금)새벽 응급실에서 갑자기 별세했다. 유 동문은 서울대 미대 입학 후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미술학 석사 학위 취득했다. 시카고에 정착 후 뷰티&헬스 분야에서 성공적 비즈니스 우먼으로 자리매김하며 한국 대통령상, 국회의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동창회 이사와 2018년의 제37대 회장단의 부회장을 역임하며 동창회의 발전에 많은 수고를 하였다. 특히 관악클럽의 발전과 유대 강화에 힘쓰고, 장학사업에 기여해 왔다.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관리자 모집

미주동창회에서는 웹사이트 제작과 관리에 봉사하고 헌신으로 활동할 동문을 구합니다. 동문들의 추천과 연락을 기다립니다.

소정의수고비 지급

코로나 시대를 사는 생활수련

김자성 전문의 온라인 강연

남가주 동창회



지난 7월 24일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민일기)에서는 온라인강연 네번째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오후 7시30분에 동문들의 입장으로 시작되었고, 30분간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전했다.

8시부터 시작된 이 강연은 총 40여명이 참여하였다. 강사는 김자성(의대 79, 김자성 정신과 병원 원장·사진) 동문이었으며, “코로나 시대를 사는 생활 수련 (퀵월버의 통합적 생활 수련 소개)”에 대해 발표하였다. 다음은 그 날의 강연 내용이다.

코로나 사태가 오래 되면서 우리가 사는 일상적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여러 형태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과 진료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습관적으로 정신적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던 외향적인 삶일수록 코로나 사태에 변화가 많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것을 보게된다. 내향적인 삶이 견디기에 훨씬 수월한 시대다.

켄 월버 이론에 따라 삶에 필요한 네 차원의 수련을 소개한다. Body, Mind, Spirit, Shadow Module이 그것이다.

Body Module (몸에 대한 수련): 그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의식은 세 상태, 즉 각성상태, 꿈 상태, 깊은 숙면 상태이고, 특이한 것

은 거기에 해당하는 몸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각성시에 해당하는 육체적 신체, 꿈의 상태에 해당하는 몸은 아마 우리가 ‘혼’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과 통하는 것이라. 가장 깊은 ‘꿈도 없는 깊은 수면’ 상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 아마도 ‘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본다. 여기에 따라 각 부분의 몸에 해당하는 수련을 소개한다.

첫번 ‘신체적 몸&(Physical body)에 대한 수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신체운동을 포함한다. 꿈, 감정 등 내면적 상태에 해당하는 ‘미묘한 몸’ (Subtle body) 수련에는 요가, 기 수련 등 방법을 언급한다. 또 가장 깊은 부분 ‘근본 몸’ (Causal body)에 대한 훈련은 다양한 명상수행이 있다. Mind Module (정신 수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심을 확대하는 공부, 이해의 틀의 확장 연습이다. 아마도 다양한 인문학적 탐구, 비교종교학 연구, 또는 통합이론을 읽고 공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Spirit Module (영적 수행)에 대해서는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적 접근법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삼인칭적 접근, 즉 객관적인 우주의 신비 탐구, 명상이 있겠다. 이인칭법의, 대표적인 예는 기독교적인 접근, 즉 나와 절대자와의 관계로 접근하는, 기도가 대표적인 형식이다. 일인칭적인 접근은 내 내면에서 접하는 신성, 즉 내재한 성령, 내안의 불성,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하는 것, 주로 명상을 통한 수련이 그것이다. Shadow Module (그림자 다루기)는 심리 치료적인 접근인데, 그림자 형성과정인 일인

칭에서 시작, 이인칭으로 또 삼인칭으로 밖으로 투사되었다면, 그 치료는 반대 과정을 밟는다. 즉 삼인칭으로서 그 자체를 직면하고, 투사된 내용과 나-너의 이인칭적으로 관계를 성립하고, 결국 나 자신의 내면으로 그림자를 소유, 끌어안은 과정을 연습한다. 이런 의식의 진화/발달에 궁극적인 종착점은 우주의식과 하나되는 합일점이라면 얼마나 많은 수련이 되어야 이런 경지에 도달할지 의문이다. 다만 인간으로서의 삶의 범주에서 상상할 수 있는 삶의 가장 성숙한 경지는 그리스도의 정신, 불교의 보살정신으로 대변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삶의 시간이 줄어들고 삶을 정리해야 하는 은퇴의 시기에 접어들어 있다면 이런 의식의 발전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가치가 있을지 의문을 품을 만하다. 여기서 이안 스티븐슨을 비롯한 여러 연구가들에 의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연구’가 좋은 시사점을 준다.

즉 삶의 영속성, 윤회의 가능성이다. 만일 우주의 큰 설계가, 정신의 성숙이 한 삶 뿐 아니라 여러 삶의 시기에 걸쳐진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단계에서나 작은 한 걸음의 의식의 진화 발전도 깊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일상이 무너지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앞서가는 지성의 전당, 서울대학교 출신 동문들이 모두 내적인 수련 발달에 더욱 매진한다면 이런 비상시국을 우리의 정신적, 영적 성장에 획기적인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강연은 9월 25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김동석(음대 64, 전 총동창회장) 전 UCLA 민족음악과 교수의 ‘국악에 대한 이해’이다.

민일기 회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초 계획한 2020년 남가주 총동창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동문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선례 문화국장>

중신이사 추대



박원준

(공대 53)

박원준 중신이사는 서울대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한 해운공사에 재직 후 미국으로 건너와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에서 석사학위(수학과)를 받았고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박사학위(통계학)를 취득했다. 그 후 32년간 Ohio주립대 Wright State University (수학 및 통계 학과)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Statistics Program Director로 10년간 겸임했다. 1979년 모교 계산통계학과에 AID 교환교수로 초빙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협회(KSEA)의 Ohio 지부장 겸 협회감사로도 일했다.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Century Foundation

“다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에서는 재정 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 캠페인 ‘Century Foundation’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대 임기까지 총 76명의 중신 이사님들의 후원과 15대 임기 1차년도에 참여하신 17명의 중신이사님들의 이사비 납부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펀드 관리 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29차 평의원회의를 통해 손재욱 펀드 관리위원장을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해 주신 93명의 중신 이사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신 동문들의 힘으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짊어질 새로운 인재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과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통해 큰 영향력을 갖게될 것입니다.

유지 보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넘어서 세대와 민족을 잇는 인재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만여 서울대 미주동문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이 땅에 뿌리내린 삶의 선배로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태영

(문리대 71/ 본지 논설위원)

<지난호에 이어서>

자유민주주의적 성향의 애국주의자들은 독립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를, 공산사회주의자들은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좌, 우 분열 속에 갑자기 해방을 맞게 되었다.

<갑자기 찾아온 해방>

1945년 8.15 해방은 갑자기 찾아 왔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한국 내외소식에 비교적 밝은 사람들은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연합국도 마찬가지였다. 1943년부터 일본의 패망을 예상하고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지만(카이로 회담 - 알타 회담 - 포츠담 회담 등)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미국이 허겁지겁 38선을 제안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 최초 원폭 투하, 8월 8일 소련 대일전선 포고 등 충격적인 사태의 진전에도 일본 군부 강경파는 여전히 필사항전을 거듭 주장했다.

8월14일 일왕 주재 ‘어진회의’에서도 강경파와 온건 항복파의 의견은 3대 3으로 갈라졌다. 결국 일왕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한다”며 항복파의 편을 들어 결론을 냈다. 그리고 다음날 8.15 낮 12시 일왕이 항복선언을 라디오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조선반도에 해방이 찾아 왔다.

한글 내부가 좌우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미국과 소련이라는 전혀 새로운 강대국이 한반도에 등장했다. 한국사회는 사상 이념적으로 해방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였다.

<8.15 해방 이후 정국 - 좌우 대립의 폭력화>

사상 대립은 당연히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다. 지하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세력은 해

방이 되자 지상으로 올라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좌우 대립은 과격한 폭력으로 발전했다. 일련의 정치인 암살 사건이 이어졌다. 송진우(중도 우파), 여운형 (중도 좌파), 김구 (좌우 합작파) 등이 1946년부터 1949년 사이에 잇달아 피살되었다.

공산주의 조종을 받는 폭동 사건도 이어졌다. 1946년 대구 폭동, 1947년 제주 43 사건, 1948년 여순 반란사건 등이 발생해 남한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6.25 전쟁의 발발 - 분단의 결정적 고착화>

북한의 남침은 소련의 승인, 중공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공산주의 팽창 전략의 산물이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세계의 공산화 즉 노동자(프로레타리아)들의 해방과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한다. 이들은 한반도에 드리워진 세력 균형선을 잠시 깰 수 있다고 오만했다. 균형이 깨진 그 잠시 틈에 한반도를 점령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한번 점령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전쟁은 언제나 오만에서 시작된다.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도발도 영국에 대한 독일의 절대적 군사력 우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누가 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전쟁을 먼저 시작하겠는가?

이점은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을 때도 적용되었다.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한 것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허리를 겨냥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상 즉, 태평양 지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었다. 즉 한반도가 공산화 되면 일본의 허리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한 것이다. 물론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지만, 전통적으로 미영의 러시아 남진을 봉쇄하려는 전

/ 역사칼럼 /

8.15 빛과 그림자②

- 희망과 분단의 서막 -

락이기도 했다.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한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 위치가 모택동이 말한 것처럼 ‘숨막힌 땅’(膺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의 국제 세력 균형을 떠나서는 가능하기가 힘든 이유이다.

4. 향후 전망

지난 반 세기 동안 중국은 눈부시게 성장하여 급기야는 G2로 올라섰다.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응은 치열하다. 이러한 미중 갈등과 경쟁 고조는 한반도의 분단을 더욱 지속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 중국 기관 매체인 <인민일보>·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020년 5월 28일 사설에서 미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비난하자 “미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했다. 지난 100여년 동안 서구 열강이 중국에 간섭하던 시기는 지났다는 선언이다. 의미 심장한 말이다.

한반도에서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은 <영러 대립 - 미소 대립 - 미중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내부에서 남북 갈등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북한이 경제적 열세를 (핵 차원의) 군사적 우위로 상충하고자 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새로운 힘의 균형이다. 남북한 균형의 뉴-모델이 정립되고 있다.

5. 맺으면서 - 사관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조망하는 방법은 일목요연하고 간단명료하여 이해하기 쉽다. 대중은 이에 쉽게 동조한다. 그래서 전통적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의 심각한 오류는 ‘몇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것 이 전부인 양 세계화 일반화’ 해버리는 것이다.

맑스는 1848년 엥겔스와 공동으로 작성한 ‘공산당선언’에서 수천년 인류역사를 간

단히 2분법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동업 조합의 장인과 직인, 요컨대 서로 영원한 적대 관계에 있는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투쟁이다”고 선언하고 있다.

맑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헤겔(1770-1830)은 “역사는 자유와 이성(freedom and reason)의 전개 과정이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했다. 역사가 진보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의 논리가 얼마나 먹혀 들어 가겠는가? 그러나 사상은 어디까지나 행동이 없는 사상가이자 이론가일 뿐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항상 그것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이다. 히틀러는 니체의 초인 사상을 이용했고, 레닌 스탈린 등 공산주의자들은 맑스의 이론과 사상을 이용했다. 대중들은 그러한 선동가들에 눈이 멀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자본주의 덕분에 한국은 오늘날 번영을 누리고 있다. 미국 덕분에 있다고 하면 반미주의자들은 쌍심지를 켤 것이다.

****주석:** 필자는 서두에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즐겨 역사를 짧게 자세히 보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썼지만 이 의미는 필자의 서술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통 사학자들도 긴 역사를 일반적 시각에서 통찰하고 관통하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서술한다. 이른바 통사(通史, 제네랄 히스토리) 등이 그것이다.

첨부: 19세기 유라시아 부분 지도(1892년 제작). 러시아의 남단을 보면 흑해,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부분, 동아시아 한반도 부분이 세 곳이 남방 진출로인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나머지는 모두 서구, 인도, 중국 등에 의해 먹혀 있다.

오봉완 동문 신인상 수상

계간 문예지 ‘시와 정신’ 수필부문

사학자인 바니 오(오봉완) 조지타운대 명예교수(사진)가 한국에서 발행되는 계간 문예지 ‘시와 정신’의 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어릴 적 자신의 꿈과 현재 80대의 나이에 여덟 손자들의 꿈을 오버랩 시킨 ‘꿈의 상자’와 1956년 뉴욕으로 유학 오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담은 ‘그 오래된 첫 날’로 입상했다.

오 교수는 10일 “많이 늦은 나이에 신인상을 받는다니, 쑥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스물 한 살에 유학과 대화는 하고 싶었지만, 50년을 쓰지 않던 한글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후 서울대 동창회보 등에 기고하며 용기를 얻었고, 이번 뜻밖의 당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중이던 1956년 미국으로 유학, 뉴욕 버나드 칼리지



오(조)봉완 (법대 53)

학사, 조지타운 대학에서 석사,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여러 대학에서 38년간 교수 생활을 하면서 2010년 별세한 오기창 박사(전 DC 가톨릭대 부학장)와 부부 한인 학자로 미 주류사회에 한국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메릴랜드 포토맥에서 22년간 거주하다 2007년 자녀들이 있는 시카고 북부지역인 에반스톤으로 이주했다. 사학 뿐 아니라 글에도 관심이 많아 시와 수필을 쓰고 역사소설 ‘궁내의 살인’을 한글판과 영어판으로 냈으며 2017년 미주 팔봉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정혁 교수

포토맥 포럼(회장 이영목)이 월례강좌로 박정혁 교수(조지 워싱턴대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사진)를 초청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그리고 의료융합(Robotics, AI and Medical Applications)’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7월9일 열린 특강에서 박 교수는 로봇과 AI 전반에 관한 발전상황, 의학 응용으로 연구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동영상 소개한 후 사람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목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5월 개설한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소통해 오다 최근 포토맥 포럼 카페를 오픈했다. 모든 강의는 네이버(Naver)에서 potomacforum을 입력해, 클릭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상진 (의대 55)

<지난호에 이어서>
뺨속으로 스며드는 냉기를 담은 곳은 가을 비가 온종일 내렸다. 나는 히치하이킹을 한 국군 6를 포장 트랙 (당시 한국 사람들은 이 트랙을 GMC 라 불렀다.) 즉 General Motors Cooperation 제작이란 말이다. 트랙 뒤 침침한 포장 안에 홀로 옹크리고 앉아 추위 이를 갈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몸이 경중 위로 뛰어 올랐다 떨어진 다음 좌우로 밀려 다닌다. 심한 현기증을 엉덩이 쓰름 때문에 맞는다. 10월 초순에 몸에 걸친 옷이라고는 8월초 서울을 떠날 때 몸에 걸쳤던 여름 학교 교복인 코발트색 면 노-타이 셔츠와 얇은 회색 바지 뿐이었다.
장항-천안-서울 기간국도 (基幹 國 道) 약 136마일 (뉴욕과 워싱턴 DC간의 거리)에 달하는 비포장 도로를 여행하는데 12시간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걸렸다. 굶은 비에 도로가 진창이 되고 웅덩이에 차 바퀴가 빠져 움직이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일본 식민지는 우리의 고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착취하면서 그 중 한 톨도 우리 땅에 재투자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이 때 우리의 새로 탄생한 공화국은 집권 2년 째였다.

한강을 공병대가 임시로 마련한 부교를 넘어 건넌 다음 군인들이 나를 종로 4거리 종각 앞에 내려 주었을 때는 계엄령 하 저녁 7시에 시작되는 통행 금지 시간 5시간 후였다. 온 동네가 정전으로 암흑에 싸여 있었고 화재로 내부가 전소된 화신 백화점(지금의 종로타워)은 매염에 그을린 외관만이 남아 있었다. 거리에는 파괴의 흔적은 없었으나 아직도 포탄의 화약 냄새가 짙 차 있었다. 혹시 순찰하는 경찰이나 헌병에게 발각되어 체포될까 길가 건물의 정면 벽을 타고 게걸음으로 집이 있는 안국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평 골목을 지나 관훈동으로 꺾어 들어섰다. 전화의 파괴를 온 동네가 면하였던 것 같고 인사동 길에서 두번째 집인 우리 한옥도 여전히 서 있었다. 내 집 앞에 서기는 하였으나 감히 문을 두드릴 용기를 내지를 못하였다. 온몸이 젖고 춥고 떨렸으나 나 자신의 생가에 잠겨 우두커니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우리 가족이 살아 남았을까. 그렇다면 집에 돌아와 있을까. 홀로 남하하신 아버지, 그리고 구두방에 수리한 구두를 찾으러 갔다가 못 돌아와 나와 함께 피난길을 떠나지 못한 세 살 아래 동생 한은 살아 있을까? 나를 기쁘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운명이 두려워 한참을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한 삼십여분을 비를 맞으며 문전에 서 있었나싶다. 드디어 길가의 벽돌 조각을 주어 대문을 두들겼더니 정전이라 초인종이 안 울린다. 집 안에서 인가척이 나고 큰형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새벽 1시가 지나 온가족이 안방으로 모여 눈물로 서로를 포용하였다. 드디

어 어머니가 아랫목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는 제각기 겪은 전쟁과 워한 개인 경험담을 나누었다.
마흔 넷 본인의 교회와 교인 외에는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고 살던 우리 어머니, 우리집을 인민위원회가 차압 하고 우리 가족을 거리로 쫓아 낸 후--6월 27일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다음날이었다——공산군 점령하 석달 동안 혼자서 11명의 머리 위에 지붕을 마련하고 이 큰 식구를 먹여 살린 장하고 강건한 우리 어머니가 이 저녁에는 가냘프고 연약해 보이는 삼십 대에 갓 들어선 젊은 여인처럼 곱게만 보였다. 우리 식구는 이 해 5월에 결혼하고 새 거주를 찾고 있던 23세 장형으로부터 두 살된 막내까지 포함 8남 1녀, 9남매, 새로 맞은 형수 그리고 어머니 해서 11

종로 사거리 화신백화점 (지금의 종로타워) 앞에서 신문 무더기를 쌓아 놓고 옹크리고 앉아 있는데 구름 한 점 없고 햇살 밝은 날에 갑자기 신문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 아버지가 서 계시지 않는가. 부자는 서로 얼싸 앉고 종로 네거리에서 부끄러움을 저버리고 목을 놓고 올었다고 한다.

8월 6일. 내가 서울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던 날, 136마일의 도보 여행을 위해 수리하러 내보냈던 구두를 찾으러 나섰다가 실종됐던 세 살 아래 동생 한은 그 날 거리에서 인민군에서 붙잡혀 소위 '의용군'으로 징발되어 북한가는 강행군을 시작하였는데 우리가 미아리 고개 언덕 비탈길을 넘을무렵 미

이제 나에게는 감사를 드리는 일 밖에는 남은 할 일이 없는데 베토벤이 이미 그 길을 나에게 보여 주지 않았던가. 우리 가족이 목숨을 잃지 않고, 다치지 않고, 우리 집이 아직도 서 있고, 우리 동네가 파괴를 면하지 않았던가. 어찌 이것을 베토벤의 건강했던 며칠간의 소강에 비할 것인가.

유성기 태업을 감은 다음앨범의 제5면은 유성기에 엮고 바늘을 판에 내려 놓았다. 피곤에 몰리고 온몸이 쭈서서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는 않았다. 나는 음악을 얻어서 기술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또 기술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겠지만 은은히 시작되는 찬송가 같은 멜로디가 흘러 나오자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바로 우리 신변에서 전개된 동족 상잔의 전쟁, 거리에서 사는 집 없는 슬픔, 견딜 수 없는 굶주림, 의미 없는 주검들,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감행된 대살육, 끊임없는 주검과 박해의 공포, 노숙의 뼈저리는 냉기, 무전 도보 여행의 근육의 수심, 표현할 수 없는 대량파괴—전쟁의 두려운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환하게 전개되었다.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니 해방감과 안도감에 몸을 맡기는 수 밖에는 다른 감정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여 베개를 적시면 5분 나만의 음악이 끝나고 베개를 뒤집고 태업을 감고 같은 면에 바늘을 다시 내려 놓았다. 이러기를 되풀이하다 보니 베개보에 눈물이 고여 웅덩이가 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러다 새벽이 가까워오니 굶은 비가 멈추고 길가로 향한 들창으로 차가운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일어나 3약장의 시작 “새로운 힘을 느낀다(Neue Kraft fühlend)”로 레코드 판을 바꾸었다. 그때의 그 전쟁의 소강이 계속되어 평가가 옳리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석 달이 채 못되어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남침하여 우리가 또 다시 서울을 버리고 피난 길에 나서게 될 것을 이날 밤 그 누가 꿈엔들 상상할 수 있었든가! 이 글을 내 뒤에 온 아들 중, 딸 미란 그리고 손자 리암에게 바친다.

후기: 부산으로 피난하면서 감사의 노래 레코드들을 버리고 떠났다. 레코드 기업의 발전/변천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SP, LP, Stereo, CD 등 여러 변화를 경험했는데 2008년에는 1930년대에 EMI가 녹음했던 부시 현악사중주단 (Busch String Quartet)의 베토벤 만기 현악사중주집이 디지털화 절차를 거쳐 EMI 역사적 레코딩 시리즈 CD 3장으로 재출판되어, 이제 나는 그날 그 늦가를 비 내리던 밤에 눈물로 들던 그 감사의 노래들을 똑같이 채 못 들은 내 레코드들을 만져 보았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뽑아 든 앨범이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곡 15번이었다.

<2020년 4월 20일자 시계탑에 게재(47권, 2호)>



온기철 (의대 65)

전쟁의 비극은 병사들과 시민의 몫

- 어느 미군상사의 한국전 참전기 -

Charles B. Schlichter는 18세에 펜실바니아 네이슨날가드로 입대하여 2차대전동안 태평양 전선에서 복부했다. 전후에 2사단 제2의무대대 상사로 근무하던 중 아내 엘리자베트를 만나 결혼했다. 군에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었지만 아내를 위해서 제대하고 퍼니저 세일즈맨으로 일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내가 신문에서 군모집광고를 보고 군입대를 권했다. 상사로 입대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미시간 젠럴 하스피탈에서 서지칼 테크니션으로 일했다.

어느날 한밤중에 찰스에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한테 무슨일이 생길거야, 뭔지는 몰라도 무슨일이 생길 것 같아. 어떤일이 있어도 우리가 헤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꼭 돌아 올테니까?” 찰스가 엘리자베트에게 자신있게 말했으나 두 부부는 그날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이틀후에 1950년 7월16일 찰스 상사는 한국전에 차출되었다.

낙동강 전선에 도착한 그는 빠르게 진격하는 미군과 같이 11월 중순 경에 청천강에 도달했다. 찰스는 엘리자베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국에서 살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청천강까지 별 저항없이 진격한 상사의 부대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청천강전투와 장진호 전투의 시작이었다. 중공군의 규모와 전투능력을 크게 과소 평가했던 미군은 참패했다. 평안남도 군우리에서 찰스상사의 부대는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군 병력을 태운 트럭 20대가 남쪽에 있는 순천으로 이동 중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 180명의 부상병도 트럭에 타고 있었다. 한장교가 “우리는 완전히 포위 되었다. 각자 알아서 도망가라” 고 외쳤다. 트럭에서 뛰어 내려 뛰었으나 어디가 남쪽인지 알길이 없었다. 이미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11월30일 밤이었다. 우왕좌왕하며 가다가 날이 새고 한 무리의 미군을 만났다. 한 대령이 15명의 부하와 함께 퇴각하고 있었다. 그들과 합류해서 행군하다 보니 다시 위치치로 돌아와 있었다. 트럭에 탔던 병사들은 모두 없었으나 180명의 부상병들은 그대로 있었다. 갑자기 미군기가 나타나더니 네이팜을 떨어트렸다. 180명의 부상병이 화염에 쌓이는 것을 본것으로 본 찰스의 얼굴에는 영하의 날씨를 버텨듯 땀이 흘러내렸다. 그곳에서 얼마가지 않아서 찰스 일행은 북한군에게 포위되었다. 15명 모두 투항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좁고 길게 파져 있는 트랜치로 끌고 가서 그 앞에 세워 놓고 기관총을 겨누었다. 찰스는 안 주머니에 간직하고 다니던 성경책을 꺼내다가 땅에 떨어트렸다. 땅에 떨어진 성경책은 Psalm 23장이 펼쳐져 있었다. “Yea,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 thy rod and thy staff they comfort me.” 갑자기 중공군이 나타나서 쓰지말라고 외치자 북한군은 총을 거두었다. 그들은 중공군 포로가 되어 쓸쓸히 북쪽을 향했다. 그러나 그 순간 찰스에게서 앞일에 대한 걱정이 모두 사라졌다.

중공군은 미군포로들을 인솔하여 북쪽으로 행군했다. 12월초 평안북도는 몹시 추웠고 많은 눈이 내렸다. 세찬 추운바람은 살을 파고 들었다. 미군의 비행기로 부터 폭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자고 밤에만 행군했다. 밤은 더욱 추웠다. 그나마 보통 길로 가지 않고 산길만 골라서 가고 있었다. 부상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의료품도 없었고 군의관이 포로로 같이 갔으나 행정 일만 해서 치료할 능력이 없었다. 급식은 하루 한끼가 전부였다. 그나마 옥수수를 물에 삶아서 canteen cup에 부어 주었다. 포로중에는 황금이 도망가느라고 캔틴 컵을 버린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자에 받든가 두손을 모아 삶은 옥수수를 받아 먹었다. 무려 20일 밤을 산속 언덕길을 뱅뱅돌면서 점차 압록강 쪽으로 올라갔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그들은 한국에서 가장길고 높은산을 넘어야 했다. 그동안 포로는 어느덧 7-800명이 되었다. 모두 지칠대로 지쳤다. 몇사람은 울고 있었다. 한병사가 “Sergeant, I can't go on” 하고 더이상 움직이지를 않았다. 찰스가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았다.

중공군이 다가왔다. 쓰아 죽이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썰매를 가져다 주고 그병사는 썰매에 탔다. 서로 번갈아 가며 썰매를 끌고 행군했다. 해가 뜨자 행군이 멎었다. 썰매에 탄병사의 얼굴에는 서리가 내려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간밤에 일어 죽었던 것이었다. 움직이지 않으면 얼어 죽는 살인적인 추위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 그들은 알루미니움 폐광에 도착했다. 조그만한 막사에 40명씩 들어갔다. 막사로 걸어들어 가는 동안 개한마리가 뛰어 다니며 낯선사람들에게 다가가 쿵쿵거리기에 바쁘다. 그날 저녁은 개고기로 잘 먹었다. 막사는 40명이 옆으로 누워야만 전부 잘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너무 지쳐서 그래도 잤다. 그러나 일어나면 엉덩이 대퇴부 근처와 팔꿈치에 감각이 없었다. 하루 한끼 삶은 옥수수 먹고 목마르면 눈을 먹어 가져 거의 한달이 걸려서 이곳까지 왔다. 대부분의 미군들은 아팠다. 영양부족에 설사까지 겹쳤다. 상처는 동상이 겹치고 치료받을 길이 없어서 아물지 않았다. 절망 상태였다. 미친사람들도 있었다. 포로들은 이곳을 Death Valley 라고 불렀다. 청천강 전투와 장진호 전투에서 패퇴한 미군은 1951년1월 4일 서울을 중공군에게 내주고 수원-원주-삼척 라인에서 반격 했다. 맥아더가 본국으로 소환되고 리지웨이 장군 지휘하에 중공

군을 무찌르고 3월14일에 서울을 탈환했다.

6월에는 38이남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다. 전쟁 1년만에 제자리로 돌아 온 셈이다. 전투는 계속되었으나 양측에게 더이상의 영토 점령이 없는 답보상태가 되었다.

1951년3월17일, Schlichter상사는 평북 벽동 수용소로 옮겼다. 이곳에는 유엔군 포로 3200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10월이 되자 거의 반이 사망했다. 미군군외관이 환자를 돌보게 했으나 약과 의료기구는 전혀 없었다. 옥수수, 조, 메주콩이 급식의 전부였다. 미군들은 콩을 요리할 줄 몰랐다. 설익은 콩을 먹고 설사하기가 일쑤였다. 옥식에 익숙한 미군에게는 건디가 어려운 음식들이 었다.

하루에 무려 25명씩 죽어 나갔다. 한국군과 터기군포로는 잘건디는데 미군포로들은 명령체제도 서지 않고 열악한 음식과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병사들이 많았다. 중공군은 포로들을 공산주의자로 전향시키기 위한 세뇌 교육을 시켰다. 하루 6시간동안 앉아서 들어야 했다.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해서 설사난 병사들은 앉은 채로 일을 봐야 했다. 신부나 목사가 포로가 되면 한명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 공산주의 만이 그들이 인정하는 종교였다.

1951년7월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원래의 영토회복이 목표였고 이미 양측이 만족할만한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내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장병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중국인민공화국을 선포한지 겨우 2년째 되는 중국은 전쟁물자를 보급할 능력이 없었다. 자국민도 식량이 크게 부족한 마당에 한국에 나가있는 중공군에게 식량보급을 충분히 할 수 없어서 굶어 죽는 중공군이 속출했다. 휴전협상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되었고 서로 크게 얻는 것 없이 사상자만 늘어났다.

1951년10월3일 Schlichter상사가 폐렴에 걸려 입원했다가 나와보니 수용소 분위기가 크게 달라져서 사망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미 군외관에게 치료임무를 주지않고 공산당 독실자가 치료를 담당했다. Schlichter상사는 위생장교로 임명되었다. 수용소 대청소가 이루어 졌다. 파리 200마리를 잡아오면 담배 한갑을 주었다. 쥐 한마리면 3갑이었다. 영악한 터기군 포로는 임신한 쥐를 잡아 21갑을 받기도 했다. 도서관을 만들어서 존 스타인벡의 분노는 포도처럼,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등의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1952년8월12일 Schlichter 상사는 반동분자로 분류되어 Wewan으로 옮겨 수감되었다.

1953년7월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졌다. 휴전협상 장소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옮겨졌다. 협상이 포로교환 문제가 타결이 안되어 무려 2년이 넘게 지연되었다. 포로들은 남한과 북한, 중공과 대만을 선택해야만 했다. 북한과 중공은 무조건 본국으로 유엔군과 남한은 포로의 선택권을 존중하자고 주장했다. Neutral Repatriation Commission을 만들어 모든 포로를 코미손에 보내 그곳에서 재심사하여 송환하기로 합의를 보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졌다. 코미손은 중립국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인도 장군 티마야였다. 반전분위기에 힘입어 공화당 후보 어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스타린이 1953년3월5일 사망했다. 웨완으로 옮긴 Schlichter 상사는 군의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찰스는 밖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전혀 몰랐다. 급식도 점점 좋아졌다. 강마른 미군은 온 세상에 보여 주고 싶지 않아서 었다. 아무튼 포로들은 좋은 정조라고 생각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아내 엘리자베트를 어느날 한 장교가 찾아왔다. 생명보험 가입을 권했다. 찰스는 2년 넘게 전투중 행방불명(MIA)로 분류되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울면서 거절했다. 1953년9월6일 이른 아침이었다. 모두 트럭에 타라고 한다. 트럭은 오전 11시 쯤 판문점에 도착 했다. 덩치 큰 수염이 덩수룩한 주임상사가 트럭으로 닥아와서 “I will call out your last name. You will answer with your first name, middle initial, and your serial number.” 하고 외쳤다. 찰스는 자기이름을 부르자 크게 대답하고 트럭에서 뛰어 내렸다. 주임상사가 “Sergeant, glad to have you home.” 하고 반갑게 맞이 했다. “ Schlichter 는, “Fella, you don't know how glad I am.” 하고 대답했다. 트럭에서 내린 160명의 포로들은 모두 신에게 감사했다. 어떤이는 무릎을 꿇고 어떤이는 그냥서서 신에게 한 없이 감사 했다. 찰스는 포로가 된지 천십일만에 석방되었다. 1953년9월23일, 찰스가 탄 배는 안개 짙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다. 부딪가는 마중객들로 분뿔었다. “Gentlemen, if you look forward, you will see something you never thought to see again” 하는 선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울려 퍼졌다. 안개가 거지면서 골든게이트 브리지 가 보였다. 그리고 공군군악대가 연주하는 “God Bless America”가 들려 오자 모든 병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커다란 밴드 소리 수많은 마중객들로 혼잡했으나, 찰스는 마중나온 엘리자베트를 놓치지 않았다. 무려 3년동안 죽을 고비를 넘긴 행운이었다.

Reference: This Kind of War, 50th Anniversary Edition, The Classic Korean War History by T, R, Fehrenbach



이회백(의대 55)

/ 삶과 생각 /

이중잣대①

William F. Buckley Jr.의 자서전 "MILES GONE BY"의 마지막 장 'Why Don't We Complain?'에서 그는 미국인을 "milquetoast"라고 보고 미국인들은 이에서 벗어나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때 가만히 당하고 있지말고 불평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milquetoast"란 생소한 단어를 "다음사전"에서 찾아보니 "겁쟁이" "소심쟁이"로 적혀있다. 미국인들이 "겁쟁이" 또는 "소심쟁이"라는게 나로서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데 그는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자기가 경험한 몇가지 예를들어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느날 그는 그날 막자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겨울이라 밝은 영하의 추운 날씨인데 차안 온도는 85도라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옷을 벗고 벅타이까지 풀었지만 별로 두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더위에 허덕이고 있는데 기차 승무원이 우리 기차간에 나타났다. 구세주를 만난듯 반가웠다. 그런데 "기차표, 기차표 내 보이시요," 할 뿐 내 앞에 도달 할때까지 더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자 나는 이런 승객의 불편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승무원을 승객들이 가만히 돌리가 없다. 어떤 힘센 사나이가 나와서 그의 목살을 잡고 더운 바람이 나오는 radiator에 얼굴을 처박아 우리와 같은 고통을 보게 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아무 표정없이 그저 표를 받아 찌기에만 바쁜 이 승무원에게 덥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내 자리에 도달하자 나는 숨을 깊이 몰아쉬고는 "Conductor, Sir"하고 배에 힘을 주고 말했다. 내뱉는 내 목소리가 너무 컸던 모양이다. 내옆에 우울한 표정을 짓고 졸고 있던 승객이 무슨 그리 중요한 용건이 있길래 그렇게 큰소리를 질러 내 잠을 깨느냐는 듯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초리가 내 눈과 마주치자 나는 승무원에게 사유를 말할 용기는 씩 들어가 버리고 내 목적지인 Stamford에 도착할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것으로 얼버무렸다. 그리고는 워턴π 신문지에 눈을 파묻고 이마의 땀을 닦았다. 승무원이 승객들 사이를 무관심하게 빠져나가는 사이 딸들리든 80명의 승객중 왜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설명하라는 승객이 한명도 없더니 이게될 말인가. 바깥온도가 85도고 기차간 냉방장치가 고장난거라면 더운 날씨를 탈탈수 밖에 없겠지만 바깥온도가 영하인데 더운 기차간 온도를 내릴 방도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이 승객들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미국인들이 왜 이런 모양이지? 하루 두 차례씩 기사를 이용하는 통근자만

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미국인들을 다 두고 하는 말이다.

몇주 전 큰 영화관에서 내 아내를 쳐다보고 "화면 초점이 맞지 않는데?"하고 조용히 속삭였다. "쉬...~, 조용해요" 나는 이 명령에 충실히 복종했다. 몇 분후에 참지못한 나는 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몇 분후면 고쳐질꺼요" 내 아내에게는 초점 맞지않는것을 돌째고 다음장면을 노치지 않는게 첫째인 모양이다. 나는 또 참고 기다렸다. 내 눈은 20/20이다. 분명 화면 초점이 맞지 않는것이지 내 눈 탓이 아니다. 마침내 아내도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내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자 우리들은 이런 짐작을 했다.

대다수 미국인들 부당한 처사에 소극적 대응

자기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무력감 빠져

정치적 무관심, 권력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져

첫째, 조금 있으면 영화관 관리인이 알아차리겠지 하는것. 둘째 그렇게 되지 않을경우 뒤에 앉아있는 사람중 누군가가 앞에 앉은 우리를 대신해 불평을 해줄것이라는것. 셋째로 그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전 관람자가 들고 일어날것이라는것. 그런데 우리의 예측은 빗나갔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화는 처음 시작할때와 마찬가지로 초점이 맞지 않은채 끝났고 관객에 밀려 영화관을 나오자 그제서야 초점이 맞는 세상이 우리를 맞이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관람자도 다 같은 고통을 겪었으리라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다들 나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책임자에게 말하겠지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또 누군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불평을 하려니 했을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들 시비를 걸기싫고 점잖게 앉아 있는게 상책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권위자에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대드는 사람은 항상 손해 보니 속이 상해도 꼭 참는게 상책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것이다. 나 자신도 가끔 불평하는 용기를 부려볼 기회가 있어도 항상 겁을 먹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하려면 누군가가 나서겠지 하고 기다린다.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승무원에게 "Conductor, Sir", 아니 "Sir"는 너무 비효는 소리

로 들릴지 모르니 그저 "승무원, 온도 좀 내려줄 수 없소?" 하지 못한단 말인가.

매년 정월 초하루면 빠짐없이 이해에는 "겁쟁이", "소심쟁이" 딱지를 때버리겠다는 맹세를 잊지않고 한다. 작년 새해 아침에 우유한잔을 달라고 세차레나 요구한 끝에야 가져오자 사실 생각이 없어진 나는 마시지 않고 나왔다. 마시지 않고서도 아무 말 없이 지불하고 나왔다. "겁쟁이" 인 나에게 화가 치밀었다. 올해엔 반드시 내 수직음을 집어치우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와 싸우자. 내 권리를 주장하되 침착함을 잊지말고 이 사회를 낫게 하기 위해서 불평해야할 기회가 있을때마다 불평하자.

그런지 48시간후 나는 Vermont 스키장 스키 빌리는 카운터에 줄을 서고 있었다. 내가 필요한것은 나사를 조일 스크류 드라이버를 빌리는것 뿐이어서 빨리 진행될거라 믿었다. 두 작업이 고객을 다루고 있었는데 한 직원은 젊은 여자에게 장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그에게는 희망을 걸 수없고 담배연기를 연실 뿜어대는 풍동한 중년남자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 큰 몸동이를 의자에 파묻고 동료직원과 잡담에만 열심일 뿐 손님을 도와줄 기미는 보이지 않자 내 맥박이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너무나 시간을 끌자 나는 한가한 이 직원에게 눈총을 보내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런데도 계속 자기를 잡담에만 열심일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갑자기 48시간 전의 내 신년 결의안이 발동했다. 이럴때 내 신년 결의안을 써먹지 않으면 언제 써먹는단 말인가. 결심이 굳어지자 내 앞에 서있는 여섯명을 제치고 줄을 나와 앞으로 전진해 점원 앞으로 다가섰다. 침착하자는 내 신년결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주먹을 불끈 쥐고 감정을 눌러 보려는 나의 시도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했다. "당신들이 과히 바쁘지 않다면," 차가운 목소리로 "내게 스크류 드라이버를 건네줘!"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듯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호기심, 적의심, 당혹감의 중심에 서있는 나 입을 발견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입에 문 담배대를 뱉들며 "Sorry Sir," 에 이어서 "나는 움직이면 안되게 되어있소. 나는 방금 Heart Attack....." ..

"?" 그 말이 끝나자 마자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리더니 커다란 군용 헬리콥터가 앉고 그를 태우고 올라가 사라졌다. 나는 이 이야기를 집에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순서를 거꾸로 내 일기장에 적고 있었다. 더 쓰기위해서는 식사 트레이를 치워야 되겠기에 승무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여자 승무원이 지나가길래 "내 트레이 좀 치워주시겠소,"하자 "Wait a minute Sir," 하고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당당한 자세로 행진해 갔다.

"어차피 다른 승객들 트레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방에 가야하고 내 트레이를 가져가는데는 많이 잡아야 2초만 더 소비하면 될텐데..."하고 말해야 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나갔다. 또는 불과 15분전에 "즐거운 여행이 되시도록 무엇이든지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릴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하고 그가 방송했음을 상기시켜줄까 하고 쓰고나니 용지가 동이났다. 내 생각으로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이런 사소한 일은 불평하지 않고 지나치고 마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기술화되고 정치적 경제적 집중화로 인해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여러세대에 걸쳐 우리 미국인들은 출거나 더울때 자기 자신이 해결하고 살았다. 지금은 plumber, electrician 또는 furnace man을 불러야 되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자기가 자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무력감에 빠지고 만다.

점점 심해지는 우리들의 무관심도 이와 연관된 현상이다. 권력이 민주당에 속하든 공화당에 속하든 권력은 점점 개인을 떠나 멀리 떨어져 있는곳에서 결정되고 우리가 결정하는 기회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개인의 권력으로서의 소외는 갈수록 심해지고 따라서 국민은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어느 전국적인 주간잡지 편집자가 말하기를 몇년전까지만 해도 단 열명정도의 독자가 비판글을 올려도 전면집진이 모여 편집정책을 재검토 하곤 했는데 요즘은 구독자수는 증가함에도 독자로 부터의 비판편지는 점점 줄어들어 그런 회의를 여는 일이 드물다고 한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들의 불평이 끊어질때 우리는 인형으로 전락하고 무관심의 늪에 빠지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양민

(공대 77)

/ 단 상 /

“산드라 오 인터뷰”를 보고

- 인종차별에 대한 단상 -

최근 한국이 상당히 유명세를 탄다. 수년전부터 어린세대들은 아이돌댄스 그룹 BTS 때문에 한국을 알기 시작했고 한국말을 배워 노래하고, 얼마 전에는 영화 "Parasite(기생충)"이 무려 4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며, 전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COVID-19"을 잘 견뎌내고 있는 모습에서, 세계인들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감탄의 찬사를 보내기마져 한다.

요즈음에 엄청 뜬 미드 중에 Killing Eve 라는 것이 있는데, 주인공은 한국인 Sandra Oh 이다. 2005년경부터 지금까지 16년간 이어지고 있는 ABC의 "Grey's Anatomy"에서 첫 10년간 출연하여 유명세를 탔고, BBC America가 제작하여 최근 써즌 3까지 온 "Killing Eve"에서 주연을 해오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USC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서울에서 시나리오를 쓰다가 봉준호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시에 통역을 맡아 유명인이 된 사론최(최성재)가 리드하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Sandra Oh 의 이야기는 들어볼만 하다. Youtube에서 한글로 "산드라오"또는 "산드라오 봉준호"라고 검색하면 여러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봉준호 감독님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라는 4분짜리 편집된 것이 바로 나오니, 잠깐 시간을 내시기를 권한다.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BZSiAfeUAs)

봉준호나 Sandra Oh 모두 한국인 부모들이 합작하여 생산한 한국형틀으로서, 같은 업종에서 태평양 양편에서 각각 성공한 사람들이다. 재능과 노력에 역경을 넘으며 운까지 겸비한 사람들이다.

산드라오의 Racism을 포함하여 봉준호에 대한 생각중에 인상깊은 말이 있다. "봉감독의 자세나 표정을 보면, 인종차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써의 당당함이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Minority였던 적이 한번도 없었던 사람을 보았다. 한국인에게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산드라오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은 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충격"이 공명하여 나에게

도 충격으로 전해진다.

서울대 동문으로써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1세대들은 두가지 면에서 당당하다. 이민 1세로써 아이덴티티 문제가 없어 당당하고, 명문대 출신이라서 더 당당하다. 또한 이민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또한 당당하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민 1세인 부모와는 다른 점이 있다. 의식하든 안하든간에 "본인이 Minority라는 점을 Fact로써 인지한다" 는 점이 부모들과는 근본적

성도 보이며,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열망마저 느껴져서 이 영상을 여러번 보았다.

봉준호는 Sandra Oh가 경험한 (사실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마이노리티로써의 being"을 경험하지 못한 장점을 소유하였다. 그러나, 산드라오는 봉준호가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을 가졌음으로 (물론 가지려했던 것은 아니지만) 해서 자신의 결핍으로부터 하든간에 "본인이 Minority라는 점을 Fact로써 인지한다" 는 점이 부모들과는 근본적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과 환호하는 산드라 오.

으로 다르다.

2세로써의 Sandra Oh의 말투와 표정과 몸짓을 통해 그의 생각을 알리고, 느낌을 가슴으로 공감한다. 자신은 자신이 마이노리티라는 점을 알고 투쟁하고 있지만, 봉준호라는 "자기와 같은 한국인"이 전혀 마이노리티여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써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결핍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감짝놀라는 그의 모습과 증언을 들을 때, 뭐랄까 진한 연민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받은 충격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산드라오의 모습 속에서, 그가 이제까지 쏟아온 노력도 보이고, 그럼에도 깨어있는 감수

다. 참으로 멋진 일이며, 부러운 경험이며, 성숙한 인품이다.

봉준호와 산드라오는 서로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멋지게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 자신의 결핍을 타인의 풍요로부터 극복한다. 산드라오는 봉준호를 celebrate 한다.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보면서, 나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고보니 나도 타자에 살면서 Minority로써의 결핍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다. 산드라오의 놀람을 바라보며, 나도 자신의 모습에서 어떤 결핍을 발견하고는 있는가 돌아보게 된다. 나의 의식은, 내가 살아온 시대와, 내가 살아온 지역들과, 나를 키운 부모와 사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먹은 음식과, 보고 배운 것에 영향을 받아 오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모든 세상을 풍요롭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 중의 하나로써, 나의 작은 세상 안에 갇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속에서 고립되어서도, 편안히 하루하루를 늘어가는 것이다. 같은 가족이라도 젊은이들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경험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니, 세대간 의식차이라든지 하는 것도 있지 않은가.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가와는 별개로, 객관적으로 나를 탐구해보자면, 나는 스스로 수평적이라고 생각지만 실상은 조금은 더 수직적이며, 나름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양적(유교적)이고, 스스로 진보적일 거라 생각해도, 삶은 보수적임을 알게 된다.

그것처럼, 내가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결핍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점은 아닐 것 아닌가. 나이가 들면서, 뒤 잇는, 다음세대 또 다음세대, 그 다음세대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씩 조금씩 그들과 차이가 있고, 더 있고, 더 있을 것은 확실하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간에 말이다. 세월이 가면서 내가 변화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발전-성숙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라치면, 조금씩 조금씩 나의 옛 성향이 강조되거나 고착되는 것과 다를 없다는 생각이 들라치면, 섬뜩함을 느낀다. 만일 내가 그 옛날-기억조차 가물해진 내 어린 시절 나의 뇌리에 들어와 나의 의식을 이룬 것들, 입맛에 맞게 들어와 머리 속에 저장된 정보들로, 고착된 identity 속에서, 수십년을 변함없이 간해서, 스스로가 언제나 옳고, 스스로 언제나 극복할 수 있다는, 그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이 만든 골방 속에 들어있다 있다면 참으로 남감한 일이다. 만일 나는 스스로 모르고 있지만, 나를 아는 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방패"속에 갇힌 "자정 인싸"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것이 바로 알츠하이머이고 치매 아니겠는가. 내가 나의 결핍을, 남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면 축복이겠다.

<닥터당대입선설원>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래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십시오.



류정순(가정 69)

/ 삶과 문화 /

오페라계의 인종차별

BLF(흑인 생명 존중) 운동은 경찰 과잉 진압 문제를 넘어 백인 우월주의의 문제로 확산되어 기업, 영화공연계, 출판계, IT업계 등 사회 곳곳의 인종차별 개선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른 어느 부문보다 인종차별이 심한 것이 오페라계이다. 그 중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메츠)의 인종차별은 특히 심하다. 개관 후 72년이 지난 1955년에야 처음으로 토스카니니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가수라고 절찬을 한 마리아 앤더슨을 1막에만 잠깐 등장하는 베르디의 가면무도회의 점쟁이 올리 카역으로 출연시켰으며 지금도 가무에 콩나듯이 흑인 가수가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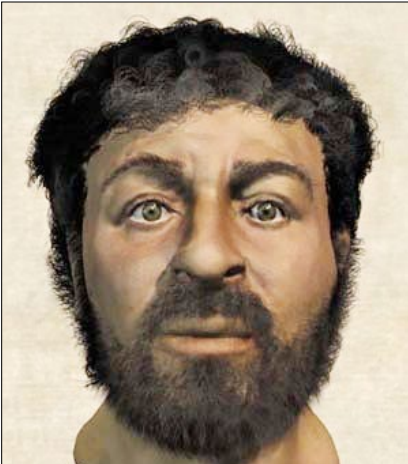
도밍고가 흑인으로 분장하여 출연한 오텔로의 포스터

최근에 미투 운동으로 제임스 레바인을 파면시키고, 플라시도 도밍고를 출연금지시켰던 메츠 단원들도 최근에 인종차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단원들은 작품 선정과 출연진 섭외, 극장 고위직 인선 등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를 극장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최근에 도밍고가 흑인 분장을 하고 출연한 베르디의 '오텔로'를 메츠가 무료스트리밍 서비스로 내보내자, 문제를 제기했다. 메츠단원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오페라에 나타난 인종차별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597년 피렌체에서 탄생한 오페라에 등장하는 유색인종은 로씨니의 '이탈리아의 터키인'의 타키인 셸림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의 알제리인 무스타파, 모짜르트의 '후궁탈출'의 셸림과 '피가로의 결혼'의 흑인 모노스타토스, 베르디의 '오텔로'의 무어인 오텔, 거슈윈의 '포기와 베스'로 등이 있다. 그

런데 이 오페라에 등장하는 유색인종들은 하나같이 바보같은 사람, 우스꽝스러운 사람, 사악한 사람, 열등한 사람이거나 성격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역들을 백인이 맡을 경우에 얼굴을 검게 칠하여 흑인으로 분장함으로써 흑인임을 강조한다.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슬람교도들을 나쁜 야만인으로 간주해 온 유럽사회의 인종적 편견이 오페라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나부코, 살로메, 타이스, 삼손과 데릴라와 같은 성경 오페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은 생족으로서 유럽의 백인보다는 아라비아나 이집트인과 비슷한 유색인종이었다. 성경에 예수 가족이 숨어서 섞이고 싶을 때 이집트로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의 모습이 이집트인과 흡사했음을 나타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백인으로 간주하는데는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대부분 아슈케나짐(독일어: Aschkenasim)으로서 유럽



2001년 영국 BBC에서 복원한 예수얼굴

인의 피가 많이 섞여서 외관이 백인과 비슷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대교와 유럽인들이 믿는 기독교와 뿌리가 같은 종교이기 때문일 것이다.

로마시절 성화에 나타난 예수나 성모의 모습은 로마인과 비슷한 흑발에 갈색눈이다. 그런데 문명의 중심이 서북 유럽으로 옮겨간 이후에는 성화에 예수나 성모가 금발에 푸른 눈으로 바뀐다. 2천년 전 가나안 지방에 살던 셈족 유대인과는 점점 멀어져 백인이 되어간 것이다.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에서 주인공 카바라도시가 성당에서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성모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을때, 애인 토스카가 와서 '누구를 모델로 그렸느냐? 그녀가 당신의 애인이지?'라고 다그치자 카바라도시는 아리아 '오묘한 조화'를 부르면서 토스카를 달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대목은 문명의 중심이 로마에서 서북 유럽으로 옮겨가

는 과정에서 성모가 이태리인 토스카와 달리 금발과 푸른 눈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유색인종들은 백인으로 바꾸고, 예수 또한 자신들의 모습과 유사한 백인으로 바꾸어 놓고는, 백인은 지혜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반면에 유색인종은 바보 같고, 사악하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으로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나비부인의 대사 중에 몇살이냐고 묻자 15살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다. 나비부인 역의 소프라노의 나이는 대부분 서른 살이 넘어 나이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오랜 훈련기간이 필요한 오페라 가수의 특성상 이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고전 오페라에는 거세된 남성이 부르는 카스트라토 역이 있는데, 요즈음은 거세가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여자가 그 역을 맡는다(바지역할). 여자가 남장을 하고 등장하여 여자끼리 사랑을 나누는 오페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아직도 유색인종 남자가수가 백인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큰 것이 오페라계의 현실이다.

유지철 '해밀턴'의 제작자 린 마누엘 미란다는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Non-White 배우들을 찾는다는 공고를 붙였다. 미국의 건국 스토리를 다루는 작품에서 '고루하고 나이 많은 역사 속 백인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종의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백인 중심 사회를 다양하고 기존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미국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 미란다의 의도이다.

유지철 '해밀턴'의 제작자 린 마누엘 미란다는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Non-White 배우들을 찾는다는 공고를 붙였다. 미국의 건국 스토리를 다루는 작품에서 '고루하고 나이 많은 역사 속 백인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종의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백인 중심 사회를 다양하고 기존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미국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 미란다의 의도이다.



이건일 (의대 62)

/ 살며 생각하며 /

우연과 필연

내 생전에 미국에 살면서 전염병의 공포에 부딪치며 나의 여생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한국에 살때 가진 상식으로 전염병이라는 것은 콜레라, 장질부사, 뇌염 같은 것들로 생활수준 낮은 저개발국에서나 보는 질병이라는 관념이 깊었다. 이제 은퇴 후 여유롭게 여생을 보내려고 이곳 남가주까지 이사 오는 커다란 결정을 한 후 있었다. 그저 몇 년 출근길에 골프치며 여행 다니고 이곳 온화한 겨울 날씨 즐기고 있던 중이었다. 이 무슨 청천 벽력 같은 흥보란 말인가!

인류가 과학진보에 너무 자만심을 가지는 바람에 자연의 철퇴를 맞는 것 인줄 안다. 여행도, 친구 만나기도, 같이 식사하기도, 영화관에 같이가기도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몇 주를 집에만 갇혀 지내다 근래에 겨우 골프를 치게 되어 그나마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골프 치고 친구들끼리 어디가서 점심 먹기도 힘들니 이 또한 문제다. 이제 미국내 감염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니, 참.

최근 몇 년간 주변에서 내가 아끼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 팬데믹 전이니 그나마 좀 나은 것일까? 나의 남은 여생을 얼마나 더 즐길수 있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 할터이니 참 한심하다. 나이를 먹어 가며 전염병의 공포에 시달리니 다음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난다.

2017년에 내가 서울의대 미주 총동창회장을 하면서이곳 남가주에서 치루었던 춘계 학술대회에서 non CME 연사로 초청 하였던 나의 고등학교 동창인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였던 홍승수 박사가 행한 강의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이 강의 후 한 2년여를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몸이 아픈 중에도 내 초청을 수락해준 친구의 마음에 가슴이 아련해

졌었다. 참고로 그는 카톨릭 신자였다. 천문학을 깊게 공부 하다 보면 철학, 종교학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없으니까. 그가 한 다른 강의에서 한 말이 있다. 천문학자들이 강의를 할때 우주의 기원이 언제였느냐는 문제가 나올때 마다 어물쩍 넘

었었구나 하였다. "그래 지금 읽고 있어"

참으로, 그는 박람강기(博覽強記) 하는 내가 제일 존경 하는 학자님, 교수님이였다. 외 겹으로 자기 분야만을 드러 파면서 옆에는 겉눈조차 주지 않고 살았던 사람. 진정한 학자였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날개가 불타 추락해 버린 Icarus (= Icarus in Italian)의 동상. Sicily 섬 Agrigento에 있는 옛 그리스 신전 앞에 놓여진 현대 조각품이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놀다 혼이 나는 인간들 같다.

어 간다고 한다.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이 수학적 계산으로만 추론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좋은 친구이자 석학을 한 사람 더 잃었다. 조금 먼저 떠난 우리의 조승렬 교수 말이다. 조 박사와 마지막 나눈 대화는 일본 여행중 버스 속에서 종교 문제로 잠시이야기 하다가 내가, "그런데, 누구는 신이 없다고 하던데," 하니 "너, Richard Dawkins 의 The God Delusion."

홍승수 교수의 강의 제목은 "지구-달 계에 얽힌 우연과 필연의 길항" 이였다. 우주의 신비를 볼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 없으며 우리 인생은 정말로 '일장춘몽' 인것을 다시 실감 하는데 거기에 이런 바이러스 같은 미물들도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니 참으로 인생이 한 편의 꿈인지도 모른다. 하긴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들 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지구에서 살고 있었던 선주민

들이다.

이 바이러스 창궐이 우연인지 필연 인지 를 나는 잘 모르겠다. 자연의 영역에 감히 손을 대어 창조주 노릇을 해보려 하였던 오만불손한 인간들이 자초한 필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주에는 많은 우연이 있었으나 그후 모든 삼라만상은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일거라고 나의 짧은 지식 을 모자라는 뇌를 굴려 가며 생각해 본다.

중세의 한 격언에 말하기를,

나는 왔누나, 온 곳을 모르면서,
나는 있누나, 누군지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나는 가누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놀라운 일이로구나 내가 즐거워 하고 있는 것이.
이격언은 "그리스도교 작" 이 아니다.
왜냐 하면 계시 종교에서는 모든 것에 합당한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칼 야스퍼스 (1883-1969)

Ein mittelalterlicher Spruch lautet:
Ich komme, ich weiss nicht woher.
Ich bin, ich weiss nicht woher,
Ich sterb, ich weiss nicht wann,
Ich geh, ich weiss nicht wohin,
Mich wundert's, dass ich froehlich bin.

Der Spruch ist nicht 'christlich'.
Denn der Offenbarungsglaube gibt auf alles eine Antwort.

Karl Theodor Jaspers (2/23/1883-2/26/1969)
Der philosophische Glaube angesichts der Offenbarung,
Piper, Muenchen-Zuerich, 3e., 1984, 28-29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차 차기 회장 후보추천 공고

제17대 (2023. 7. 1. – 2025. 6. 30) 회장 후보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중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실 차 차기회장(제 17대 미주 동창 회장: 2023. 7. 1. – 2025. 6. 30.)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 합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훌륭한 후보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회장, 차기 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인선 위원

위원장: 윤상래
978-386-5510

신응남 회장
646-523-9606

노명호 차기회장
626-991-4457

이용락
(사카고)

황효숙
(미네소타)

손재욱
(필라)

정명희
(워싱턴D.C.)

제 17대 회장
(2023. 7. 1 – 2025. 6. 30)
선거 일정 및 근거 규정

선거 일정

근거 규정

1. 2020. 12 월 31 일: 차 차기회장 추천서 접수 마감

2. 인선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회보 등을 통하여 출마 공약을 발표

3. 2021 년 6 월: 전국 평의원 회의(정기 총회)에서 투표로 차 차기 회장 확정.

1. 근거 규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 규정

2. 차 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 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권오울 (상대 56)

캐나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도 반년이 넘었다. 그동안 우리들은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어서 친구나 가족들 간의 왕래나 접촉이 예전과 같지 못하고 대인관계마저 소원해졌다.

최근 캐나다의 한 연구에 의하면 6주간만 서로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어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특히 소외감에 빠져든다고 한다. 소외감은 고독감을 오게하고 고독감은 불행을 가중시킨다.

캐나다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독감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작년 1월 캐나다 사람의 20%가 고독하다고 CBC가 방송하였다. 비록 설문조사기구가 다르지만 금년 4월에는 글로벌뉴스에서 캐나다 사람 중 54%가 고독을 느낀다고 방송되었다. 코로나 발생 전후를 통한 고독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보를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다. 다만 고독감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

OECD는 고독함을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을 한다. 이 OECD의 측정에 의하면 2010~18년간 50세 이상의 사람들 중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고 한 비중이 캐나다가 92.4%, OECD 평균이 87.2%인데 비하여 한국은 63.1%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낮다. 즉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사람(고독한 사람)이 캐나다는 7.6%인데 비하여 한국에서는 무려 36.9%가 된다.

이런 고독감은 무서운 질환과 같다. 고독감은 정신적인 건강(우울증, 불안장애, 치매)에 나쁘고 그 중에 특히 치매에 걸릴 확률을 배로 높인다. 육체적인 건강(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만성통증, 피로감)에도 해롭다. 결과적으로 고독감은 담배를 하루에 15개비 피우는 것, 또는 비만보다 더 나빠서 사망 가능성을 30%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런 무서운 고독감과 그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질환은 처음에는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서서히 온다. 고독감은 악순환을 가져온다. 고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기때문에 자연 친구들을 잃게 되어 고독감이 더 깊어진다. 또 고독감은 주위로 전파되어 고독한 사람은 배우자나 친구, 그 친구의 친구까지 고독하게 할 확률을 높이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심지어 장기간의 고독감은 우리 유전자에도 입력되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된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계속하면서 이런 고독감을 줄이고 우리의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

론 고독감은 고립이나 소외감뿐 아니라 유전자도 큰 몫을 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감의 절반은 유전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절반 이상 우리의 행동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독감은 고립된 것보다 의사소통이 되는 친근한 대인관계가 없다는 주관적인 정신상태를 의미한다. 정신상태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심리학이 실증하고 있다. 그래서 고독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증분석문헌에 기초를 두고 고독감을 다스리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 우선 요즘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다. 남이 다가오면 감염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무서워지니 자연 우리의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코로나 이후 캐나다 국민 54% 고독감 호소

고독감, 흡연자 보다 사망가능성 30% 높아

규칙적 생활 패턴, 소통, 육체적 운동 도움

협동, 상부상조하는 부부관계로 정신건강↑

필경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것이니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심해진다. 감염자가 남이 아닌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같은 조심이라도 남을 위한 배려가 된다.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은 더 많은 친구를 갖게 하고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높인다.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도 시민 각자의 의무이고 당연한 것으로 믿어진다.

2. 일상생활에서 목적을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료하고 하릴없다는 생각은 초조감을 야기시키고 고독감을 가중시키는데, 목적 설정과 실행하는 할 일을 만들게 된다. 목적 있는 삶이란 의미 있는 생활로 목적 달성이란 결과뿐 아니라, 달성하려는 행동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고독감을 줄여 준다. 목적이 원대할 경우 그것을 세분하여 그날그날 달성할 목적을 세워야 된다. 가령 원대한 목적과 관련되는 습관을 기르겠다고 생각해 보자. 웬만한 습관은 한두 달 매일 반복하면 형성된다.

습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두 요소가 신호(cue)와 보상이다. 만일 걷는 습관과 책 읽는 습관을 기른다고 생각하면, 하루 중 어떤 시간을 신호로 정한다. 아침 7시를 나가서 30분 걷는 것과 저녁 9시를 책 50페이지를 읽는 신호로 정하는 것과 같다. 보상으로 걷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고, 독서는 인지능력을 유지하고 지적발전에도 좋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보상은 먼 훗날 서서히 오기 때문에 습관을 기르기 위한 보상으로 역할을 잘 못한다. 차라리 달력에 두 가지를 성취한 표시를 매일 해 두면 성취한 표시가 쌓이는 것을 보면서 많은 자극(보상)이 된다. 이렇게 두 습관을 달성하였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의 다른 습관을 정하여 매일 할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고독감을 방지한다. 따라서 코로나 재앙하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니 실업자가 많이 생겼고, 직장을 갖고 있어도 자택근무를 하니 부부가 온종일 같이 집에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정불화나 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이혼율도 높아져 불행과 고독을 초래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에 연연하지 말고 부부가 협동하고 상부상조하는 가정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집에서 청소, 세탁, 음식 만들기 등을 함께 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좋게 할 뿐 아니라 고독감을 이기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5. 육체적인 운동이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다. 고독한 사람은 무기력하게 느껴 육체적 활동이나 운동을 할 동기를 잃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린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한 번씩 나가는 것을 생활의 원칙으로 정하여 습관적으로 실행하기를 권한다.

6.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이타적인 행동으로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하여 고독감을 줄일 뿐 아니라 우울증 예방, 치매 예방, 수명 연장,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 봉사활동은 특히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갖게 하여 고독감을 줄이고 행복으로 이끌어 준다. 또 여러 사회단체(동창회, 노인회, 여성회 등)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도 봉사활동과 같이 우리의 고독감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7. 긍정적 정신태도(Positive Mental Attitude)를 갖는다. 고독감은 부정적인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억제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깊은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하면서 긍정적 정신태도를 유지한다.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증분석에 기초를 둔 여러 문헌들이 고독감을 방지하는 갖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 위험 상황에서 서서히 침투하는 고독감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의 고독감도 줄이고 그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하여 고독감 방지책을 실천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필자도 여러 가지의 고독감방지 지침을 수행해 나간다고 자신한다.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좋은 부부관계가 우리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행복한 가정은 고



한정민 (농대 87)

/ 전문 칼럼 /

가정 안에서 우주와 우주가 만나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족들을 한 집에 몰아넣은지 넉달이 넘어간다. 4년 전에 아이들이 대학으로 떠난 후 절간 같은 집에 생기가 돌고, 솔무늬 운전틀 다시 시작하니 신나기도 하면서, 가끔은 익숙해지고 편해진 ‘빈 등지의 여유로움’을 빼앗긴 듯 버겁기도 하다. 가정 공동체의 합삭 훈련이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지 새삼 궁금하다. 여기저기 뉴스에서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지만, 주변의 많은 이들은 ‘한 세기에 한 번 겪는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고백을 한다. 그들 대부분도 여전히 가끔은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나는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진 두 개의 우주라는’ 당연하고도 어려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원가족(Family of origin)이란 우주 속에서 탄생하고 그 우주가 이미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규범과 독특한 규칙들을 공가처럼 익숙하게 배우고 성장한다. 어린시절부터 자신이 속한 환경

으로부터 정보를 검토하고 해독하여 자신만의 생각의 틀과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인지심리학에서 ‘도식’ 또는 스키마(schema)라고 부른다. 이것은 주변 인물들과의 상호 작용과 일련의 상황을 겪으며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경험한 세상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인지구조를 가진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타인을 다른 우주로 인식하고 그 입장에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경험을 우리는 ‘공감하는 능력’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한테는 공감도 잘하고 잘 들어주는데, 유독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힘들고 화가 나는 걸까? 가족은 너무 익숙하고 친밀해서 나와 다른 사람으로 더 나아가 완전히 다른 우주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나와 같겠지’ 아니면 ‘가족인데 나랑 같아야지’란 신념이 부지불식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만나는 우주는 나의 원가족이 살던 우주와 다르고, 같은 부모를 가진 첫째와 둘째도 그들이 타고난 성품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전혀 다

른 우주 속에서 성장한다. 배우자의 우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부부와 가족들을 오래 상담하면서 얻은 깨달음 – 우주와 우주의 만남 – 은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품과 깊이를 넓혀주었다. ‘너무 이해해’란 빠른 판단으로 마음을 닫는 대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부모와 환경 속에서 컸으니, 나와 다른 우주란 열린 생각을 심기 시작했다. 오해를 받거나 이해 받지 못할 때도 잠시 마음이 상하지만 차차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은 자신이니, 그 잣대로 어떻게 나를 다 이해하겠어?’란 생각을 하면 감정이 누그러진다. 때로는 나중에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자란 환경, 어린 시절 상처나 트라우마 등을 우연히 알게될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 입장이 이해되는 경험을 여러번 한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더욱 어렵다. 오랫동안 아무 의식없이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옳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기에 ‘그는 나

와 다른 우주라는 열린 생각을 의식적으로 심지 않으면 힘들다. 특히 바운더리가 부족하고 개인의 분화가 낮을수록, 가족이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배우자나 자녀를 통제하고 지적하고 바꾸려 한다. 문화와 가치관은 결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그냥 다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저 사람을 이해 못해서 공감 안 되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해를 못해도 공감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감은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우주를 방문해서 그 우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단 기준이 ‘나’일 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는 더더욱 없다. 안타깝게도 부족한 공감능력은 사회생활에 치명적이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요즘같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는 갈등을 증폭시킨다. 가족 간의 갈등이 맞고 틀림이 아닌 ‘우주 전쟁’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짜증과 화가 줄어든다.

<심리상담사>

/ 짧은 글 /



김지영(사대 69)

창 밖의 아들

“아들이 왔다. 아들이 왔나? 아들이 맞네. 지금 인가? 아니 어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실 터이다.

엄마가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든다. 살췍이 터지는 엄마의 환한 웃음, 꼭 달빛 아래 활짝 핀 하얀 박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든다. 엄마를 향해 한 발 내 뚫는다. 더 다가갈 수 없다. 세월이 “하~ 수상하니” 엄마와 아들 사이에 금줄이 쳐졌다.

엄마가 계신 요양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방문객은 모두 사절, 이들은 병원 바깥에서 유리 벽 너머 엄마를 본다. “엄마” 큰 소리로 불러 본다. “그라, 왔어” 엄마 대답하신다. 외벽을 강화 유리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 꼭 고장난 전화기 소리같다. 안에 계신 엄마, 밖에 있는 아들, 외마디 고통 몇 번. 이런 것

이 2020년 코로나 시대의 대화법이다.

구 십이 가가워지면서, 엄마는 사람들의 이름표를 하나 하나 지우고 계신다. 아들과 같이 간 조카들을 헛갈려 하신다. 그래도 아들 하나만은 또렷이 알아보신다. “애들도 다 잘있구?” 더 이상 애가 아닌 손자, 손녀도 아작은 기억하신다. 칠 십 년 동안 엄마 생각 리스트의 첫 번 째였을 아들, 그 아들 만은 잊지 마시길...

엄마에게 이제 시간은 별 의미가 없다. 어제 일인지 십 년 전의 일인지 구별을 안 하시는 듯하다.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만났던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도 필요없는 구분이다.

더구나 유리창 밖에 어른 거리는 아들의 모습은 꿈 속에서 본 그림과 다를 바 없을 터

이다. 아들의 존재는 그냥 엄마 마음 속의 느낌일 따름.

아들은 태평양을 건너서 왔다. 로스앤젤레스의 집을 떠나 만 24시간 만에 엄마가 사시던 빈 아파트에 도착, 14일 동안 강요된 은거를 했다. 엄마가 계신 요양원과는 75 마일, 그래도 그 동안은 갈 수 없었다. 다행히 전화를 하면 반갑게 받으신다. 첫 질문은 “워디여?” “공주 엄마 집” 이렇게 대답하면 또 물으신다. “거긴 왜?” 자가 격리가 끝나고 공주를 떠날 때까지 아들은 매일 엄마를 보러 간다. 판토마임 - 엄마와 아들은 눈빛으로만 만난다. 아들은 초조하고 안타깝다. 그래도 엄마는 항상 웃으신다.

아들이 어릴 때 본 보름달 아래 잿빛 초가 지붕위에 정갈하고 의연하게 피어 있던 박꽃

같은 웃음, 박 꽃의 꽃 말이 기다림이라고. 엄마와 아들은 만나거나 한 것인가? “만나다”라는 우리 말은 “맞이하다 (迎)”와 “나오다(出)”가 합쳐서 생긴 단어라고 한다. 한 사람은 맞이하고 또 한 사람은 다가오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 진다. 맞이함과 다가움이 같은 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도 만남이라 할 수 있을까? 엄마와 아들이 만나서 손을 잡고 한 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상이 그림다. 그 일상이 기다리던 다시 돌아오겠지.

아들은 로스앤젤레스 집으로 돌아온다. “엄마 잘 왔어” 아들이 전화한다. “워디여?” “여기 미국” 엄마가 또 물으신다. “거긴 왜 갔어?” 하기는 “거기” - 미국 - 에서 40년을 살아온 아들도 요새는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자주 하게된다.



이병수(문리 65)

가재들이 노래하는 해변에서②

Delia Owens ‘Where the crawdads sing’

<지난호에 이어서>

그는 Kya가 자연을 좋아하는것 우러러 보며, 이렇게 하므로 그녀와 가까워 지려고 시도한다. Tate는 다른 것들도 선물을 하곤하는데, 예를 들면 그녀의 보트 스파크 플러그같은 것을 모아다 갖다주는데, 그때마다 작은 종이 메모를 남겨 놓기도 하지만, Kya는 그걸 읽을 줄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Tate가 살면서 글읽는걸 가르쳐주려고 나타나면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곤 하다가, 언젠가부터 Tate의 친절한 제의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데, Tate는 부지런히 책들을 구해다 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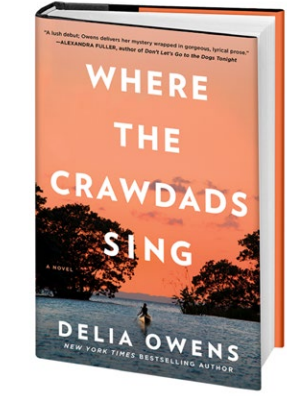
Kya도 Tate가 숲속에 나타나, 글을 배우고 책읽는걸 즐기게 되는데, 책 중에 껏별에 서식하는 야생 조류에관한 년감을 매우 흥미롭게 좋아했다. 그녀는 또 시를 좋아해, 그지방의 시인, Amanda Hamilton, 의 지방신문에 게재된 시를 특히 좋아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 Tate는 19, Kya는 15살 이므로 한번은 섹스를 생각해보지만 참기로 마음먹은 Tate에게 Kya는 자신이 보기보다 어리게 취급받는것 같아 다소 실망한다. 그들은 다른방법으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약속한다.

그러다 어느날 뜻밖에 Tate는 Kya에게 자신은 대학에 진학해야하고, 여름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미생물학 리써치 인턴십으로 일을 해야 하므로 한동안 떠나야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매년 7월 4일 연휴에는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Kya는 그날을 고박 기다리게 된다. 그날이 돼도 Tate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 다음, 다음해 예도 그의 모습은 바닷가에 보이지 않는다. Kya의 마음에 Tate가 사라질무렵, 그 지역에서 제법 잘나가고 번듯하다고 알려진 Chase Andrew가 Kya에게 구애를 하고, 그들은 사귀게 되지만 Kya는 섹스를 자꾸 미루고, Chase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수년이 흘러간 1966년 Tate가 껏별 마을로 돌아온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원생동물학(protozoology) 박사학위를 시작하려고 함참이었다. 그는 Kya를 버린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다시 만남에서 Kya는 큰소리로 Tate에게 퍼부어 댈다.

그는 살아온동안 가장 커다란 잘못을 뵈했으며,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전한다. Chase도 타운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지만, Kya는 Tate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말문이 막힌 Tate는 Kya에게 집으로 방문하여 Kya가 야생조류 자료를 모아놓은것을 보고 싶다고 청하고, Kya는 마지못해 허락한다. Kya가 혼자사는 집안으로 들어온 Tate는 그간 Kya가 모아 놓은 상당량의 조류관련 컬렉션에 감탄하고, 그 일부를 조류 연구서적 출판사에 가져가, 희귀조류의 종자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수 있다고 보고, 일러스트레이션, 설명과 함께 출판하자고 제안한다. Kya가 그간 모아 놓은 샘플은 희귀 조류연구 서적을 출판하기에 충분한 양을 확보해 놓은것을 Tate는 발견하게 된다. Kya는 Tate의 제안을 수락하고 Tate는 자료를 가지고 마을을 떠난다.

Kya는 Tate가 다시 돌아와 접촉한 사실을 Chase에게 알리지 않고, 서서히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매번 Chase가 그의 부모를 만나고, 언젠가 결혼을 계획하자고 할 때마다 그를 밀어내고 질질끌며 미루곤한다. 그러다 하루는 타운에서 Chase가 한 여자를 껏안고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가게에서 신문 한 부를 사서 집에 돌아와 펼쳐보는데, 그때 본 그여자 Pearl, 와 Chase의 약혼한 사실이 공지된 기사를 본다. Kya는 즉시 Chase를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마음먹고, 마을에서 완전히 지워 버리고, Tate를



서 강간하려 든다. Kya는 Chase의 사타구니를, 다음엔 신장부분을 있는 힘을 다해 걷어 찼다. 그녀는 타고온 보트로 도망치면서, 더이상 자신을 해치면 죽어버리겠다고 외치며 사라졌는데, 인근에 있던 어부 하나가, Rodney Horn, 그소리를 들었다. 그 사실이 일년후 Kya의 Chase 살인혐의 재판에서 중요한 검사측 증거로 제공되고 있는데, 다행이도 Kya의 변호인, Tom Milton,이 다만 그증거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 반박한다.

시체 주변에 전혀 발자국이 없고, 소방방대에도 아무런 지문이 없는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전 재판과정을 통하여 Eric - 주정부 검사 - 은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Kya를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Marsh Girl(껏벌소녀)’로 몰아가는 전략을 쓴다. 그러나 Kya의 변호인 Tom은 피고인이 마을 사람들이 약속으로 만들어낸 성질이 불같은 위험한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서 부터 버려져 살아남기 위하여, 외롭게 혼자서 모든걸 해결하며 굳건하게 자라온 아주 훌륭한 젊은이라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하고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호소한다. 이 주장은 결국 배심원들에게 먹혀 들어가 배심원들로부터 Chae 살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된다.

Kya는 재판을 받는동안 법원 구치소에서 몇달을 지낸후 껏별가 움막집으로 돌아온다. 재판이 끝날때까지 Tate는 그녀의 뒤에 앉아서 그녀에게 정신적으로 씨포트하였고, 사건이후 소식을 들은 오빠 Jordi도 함께하고 있었다. 헌데 Jordi의 말로는 엄마가 집을 떠날 당시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었고, 2년전 뉴올리언스에서 죽었다고 한다. Jordi는 Kya가 Tate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Tate를 용서해줄것을 권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Kya는 그간 너무 지쳐서 Tate를 자신의 삶속으로 받아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드디어 Tate와의 관계를 로맨스로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게 된다. 다시한번 Tate는 Kya를 버려둔것을 사과하고 Kya의 움막집에 들어와 행복하게 산다.

Tate는 미생물학 연구를 하고, Kya는 벌써 7권째 North Carolina의 야생 생태계에 관하여 책을 출간하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날 Kya가 64세 되는날 보트를 타고 나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다. 그녀의 장례식에 타운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을 보낸다. Tate는 장례식을 치른후 그녀의 유언장을 찾는다. 마룻장 밑에서 Chase의 조개비 목걸이와 구겨진 종이에 시한편이 적혀있는데, local 시인 Amanda Hamilton의 필명으로 쓰여있다. 시의 제목이 ‘Firefly(불나방)’으로 적혀있는데, 이는 그녀가 Chase를 소방망대로 끌어드려, 열려있는 햇취(hatch) 사이로 넘어지게 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 문학 다락방 /

용서하기로 서서히 마음을 열지만, 아직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지는 못한다. Kya가 Chase와 결별한지 일년쯤 지날 무렵, 그가 Cypress Cove라는 곳에서 그녀의 뒤에서 따라왔다. 그녀에 바짝 다가오더니 몸으로 덥치면



서윤석(의대62)

나의 얼굴

나의 얼굴이 내려앉는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당겼다가 놓으니

나의 얼굴이 내려앉는다

벗겨지는 한 장의 껍질이 되어

광대뼈 밑으로 내려앉는다

길게 늘어진 코와 부처님 귀를 달고

턱뼈 아래로 쑥 내 내려앉는다

말라버린 반죽이 되어 매달린다

돌아가신 선친의 모습인지

나의 얼굴인지 알 수 없지만

눈꺼풀에 덮인 실눈마저 사라진

흘러 내리는 나의 얼굴

/ 동문 시 /

My Face

My face is falling.

When I pull and drop it
with my wrinkled hand,

my face falls.

It falls below the cheekbone,
like a piece of the wrap peeling off.

By dragging the elongated nose and
Buddha-like ears,

my face slumps further

under the chin.

It hangs there like a dried dough.

Amid confusion between mine

and my ancestor's features,

missing small eyes covered

by thick eyelids,

my face becomes a 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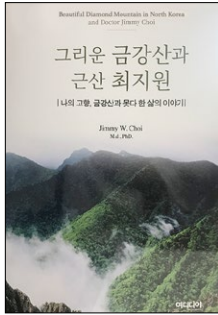
최지원(의대61)

그리운 금강산과 근산 최지원

‘근산’은 한자로 ‘가까울 근(近), 뫼 산(山)’을 합친 말이다. 최지원 동문은 산비로운 금강산의 사계절과 함께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리운 고향 금강산을 떠난지도 몇십년이 지났지만 금강산은 아직 그의 마음과 기억속에 남아있다.

그는 “내가 살던 철원과 지리적으로, 또한 내 어린시절의 추억이 담겨 심리적으로 가까운 근산은 나에게 금강산이요, 또한 근산(近山)은 곧 최지원,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금강산은 그의 마음의 고향으로, 어릴 적 금강산의 풍요로움과 푸르름을 보았던 자양분은 혼날<밀알신앙>의 뿌리가 되었다. 평생에 걸쳐 마



강산 여행길을 함께하자는 의미로 이 책을 기획했다.

그는 “멋진 금강산을 독자들도 만나게 되길 염원하며 금강산의 진면목을 후대에 알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음 속 깊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누구도 쉽게 가 볼수 없는 금강산을 사진으로, 노래로,나마 추억하며 내금강, 외금강을 따라가는 금

지난 83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 뿐이라는 최지원 동문은 밀알의 정신을 가슴에 지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었던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새롭게 추억해보고자 ‘밀알신앙’ 최지원 회고록을 발간했다.

그는 “2019년 초 당뇨병이 심해 잘 걷지도 못했지만 아내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 한국을 방문 했을때 내리교회와 새문안교회에서 여러만남과 은혜가 있었다”며 “그때 서울대 의대학장 신찬수 교수에게 초청 받아 당뇨병과 간암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다. 그 7일간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듯 가

/ 회고록 2편 /

‘밀알신앙’ 최지원 회고록



슴깊이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 믿음의 도전을 기념하며 22년만에 근산 최지원 장로 팔순 회고록을 인생 가는 길 마지막

으로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전했다.

/ 추천 책 /

폴 손 칼럼 - ‘시대와 삶을 읽다’



고 손석보(공대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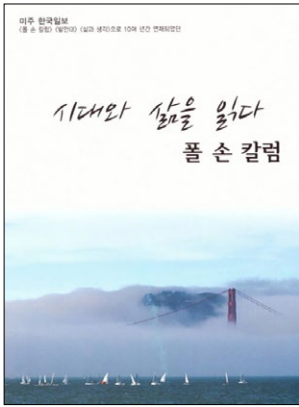
고 손석보(공대 68)동문의 저서 ‘시대와 삶을 읽다’는 손 동문의 칼럼 집으로 10여년간 한국일보에 ‘폴 손 칼럼’ ‘발인대’ ‘삶과 생각’ 등의 이름으로 연재됐던 글이 실려있다. 서울의 도서출판 구암이 출판한 이 책은 517 페이지 크기로 각 칼럼의 주제에 따라 9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문에 게재된 년, 월을 적어두고 있다.

폴 손의 칼럼집은 1부 조국을 세우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2부 평화의 대비는 평화로울 때, 3부 자유만큼 소중한 가치, 4부 영어보다 문화, 5부 철없는 남자, 겁 없는 남자로 편집돼있다. 그리고 책의 하반부인 6부에는 인생질십 고래회, 7부는 황혼의 베이비부머, 8부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9부 하나님의 연애편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뒷부분의 에필로그에는 내가 만난 폴 손에 대한 글이 수록돼 있다.

아내 손명화씨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폴 손의 글을 아쉬워하며 책으로 나오면 의미 있을 것이라는 독자들의 제안에 따라 책으로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손명

화씨는 “폴 손의 삶과 시대적 열정이 녹아든 이 책을 통해 그가 지기려고 노력했던 믿음, 성실, 사랑, 공정, 회복의 세상을 이루어 가는 지혜로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서문에 적고있다.

고 손석보 동문은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를 졸업후 유학을 와 일리노이 주립대를 졸업했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GE) 등에서 원자력 안전부문 엔지니어 책임자로 30여년간 일하다가 은퇴했다. 한국일보에 15년간 칼럼을 쓰기 시작한 폴 손씨는 지난 2018년 8월 18일 급환으로 향년 69세에 별세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이 책을 동문들께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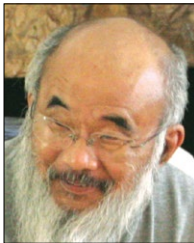
미주동창회 평의원의회가 끝나자마자 이 책이 동창회 사무실에 도착했다. Overnight Mail로 급하게 온 듯한 이 책은 하재청(문리 67)동문이고 손석보 동문의 책을 미주동문들께 알리고자 직접 보내 온 것이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장소현 (미대 65)

/ 미술 이야기 /

화수 조영남과 아트테이너 ①

자칭 화수(畫手) 조영남의 ‘그림 대작(大作)’ 소동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나면서, 이른바 ‘아트테이너’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진 것 같다.

사실 이 사건(?)은 애당초 법정으로 갈 일이 아니었다. 예술가의 양심과 윤리 또는 미술 시장의 상도덕에 관한 문제이니, 미술계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좀 시끄럽고, 미술계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랬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미술계가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 예술의 문제를 재판소가 판정하는 건 아무튼 우스운 일이다. 예술이나 외설이나, 표절이나 아니냐 그런 문제를 법으로 다루는 일은 더러 있지만. 이런 영역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옳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일이 이렇게까지 온 것은 전문가들의 책임이니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설득력을 갖는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현대미술 본질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조영남 대작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핵심 쟁점은 사기냐 아니냐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6월2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참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인 2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 한 것이다.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현대미술에서 작가들이 조수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 흔한 관행이므로 대작은 사기가 아니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조영남은 “대법관들과 검사들이 총동원돼 나를 화가로 만들어줬어. 고마워...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가 아마추어 미술 애호가였던 한 사람을 전업작가로 승격시켜준 케이스’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줄지에 국가 공인을 받은 화가가 된 셈이다.

▲조영남이 던진 많은 숙제들

이번 소동은 미술계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다. 그동안 모른 척하고 지내온 매우 근본적이고 미묘한 문제들이다. 그것 말고도 미술계는 조영남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 서글픈 이야기이지만, 화가로 미술에 관해서 이처럼 떠들썩하게 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람은 아직 없었다. 이번처럼 매스컴이 관심을 가지고 크게 다룬 작가는 아마도 백남준 정도일 것인데, 그나마 한두 번에 그치



곤 했다. 이번처럼 긴 세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라의 온 언론이 미술에 대해서 크게 취급한 예는 없었다.

도대체가 미술 이야기가 신문 사회면에 나는 일이란 아무개의 무슨 그림이 몇 십억에 팔렸냐, 세계 명작인 아무 작품이 도난을 당했다, 엄청나게 비싼 아무아무 작품이 가짜로 밝혀졌다,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집어온 작품이 진품으로 밝혀졌는데 가격이 무려 얼마로 추정된다.. 그런 따위의 기사들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이 돈과 관계된 화제들이다. 그만큼 보통 사람들은 미술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의 인기 화수 조영남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가며, 미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미술계에는 근본 문제들을 성찰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감사

해야 마땅한 일이다. 단언컨대, 이만한 효과를 단숨에 이끌어낸 미술가는 거의 없다고 말해도 좋은 것이다. 조영남이 인기 아트테이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

조영남 대작 소동이 남긴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

니다. 예술작품과 상품과 제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설명이 참 어렵다. 그밖에도 조영남 대작 소동은 미술교육을 꼭 학교에서 받을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 미술시장의 윤리 문제, 미술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일깨워주었다. 고맙다.

▲현대미술과 이론의 중요성

조영남은 자신이 그저 취미로 그리는 화가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 책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열심히 설명한다. 이번에도 또 한 권의 현대미술에 대한 책을 펴냈다.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이란 책에 이은 두 번째 저서다. 책의 제목은 <이 말할 놈의 현대미술>, ‘현대미술에 관한 조영남의 자포자기 100문 100답’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다. 4년간의 재판 기간 중 절절하게 느낀 현대미술의 요지경과 그간의 소회를 100개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쓴 책이라고 한다. 책 말미에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낭독했던 최후진술문을 실은 것을 보면 어지간히 답답하고 할 말도 많았던 모양이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명한 화가 중에 음악가로도 수준급 활동을 펼치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음악에 대한 전문서적을 썼다고 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 “한 가지만 열심히 하라”고 말할 것 같다. 그런데 조영남의 경우는 다르다. 가수가 쓴 미술책인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꽤 목작한 권위도 갖는다. 이미 발간한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만 해도, 450면이나 되는 두꺼운 책에 전문서적다운 내용을 담고 있다. 미술 전문 학자나 평론가의 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 글을 읽고는 조영남을 취미 작가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현대미술에서는 그만큼 논리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럴듯한 설명이 작품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름값도 중요하다. 조영남의 작품이 가치를 갖는 것은 그 자신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그가 인기 아트테이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 ‘인기’라는 낱말 속에 현대미술의 속성이 들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

세상에는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 이 영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동시에 험난한 시대에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해야만 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도하다.

주인공 마이클 버그 (Michael Berg)는 독일의 변호사인데, 15세 소년 시절, 그는 20세 연상의 여인 한나 슈미트 (Hanna Schmidt)를 만나게 되어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그녀는 그에게 늘 책을 읽어 달라고 한다. 읽는 것보다 읽어 주는 것을 듣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며. 사랑이 뭔지도 모를 사춘기의 이 소년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는다.

그러던 어느 날 통보도 없이 한나는 사라져 버린다. 슬픔에 빠진 그는 몇 년 후 법대에 진학하게 되고, 형사 재판 방청을 하게 되는데, 아 거기 피고 중의 하나가 한나가 아닌가? 그녀는 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친위대 소속 유대인 수용소 간수. 그녀를 포함한 6명의 여자 간수들은 계속적



박준창 (인문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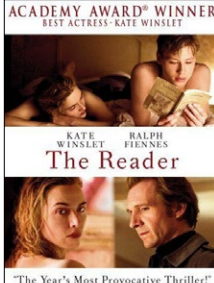


박변의 내멋대로 영화보기

The Reader (책 읽어주는 사람)

으로 들어오는 유대인 수용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지면 있던 수용자들을 내 보내야 했다. 하지만 내보낸다는 의미는 개살기로 보내는 것. 죽을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잘못을 모르냐며 질책하는 판사에게 그녀는 되묻는다. 당시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고. 이 대목에서 일제 시대 당시 친일 부역자들 생각을 아니 할 수 없게 된다. 누군가 친일 부역을 출세형 부역과 생계형 부역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했는데, 생존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일 부역을 한 사람과 입신양명을 위해 서 부역을 택한 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는 것. 수용소를 관리해야 하는 간수가 그런 상황에서 다른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인가? 판사 역시 그녀의 되물음에는 답이 막힌다. 그녀와 함께 기소된 다른 간수들은 모든 죄를 한나에게 뒤집어 씌운다. 상부에 올라 간 하위 리포트를 그녀 혼자 작성했다며. 그녀가 아니라고 하자 판사는 그녀에게 필체 감정을 해 보겠냐며 글씨를 써 보라고 한다. 당황해 하던 그녀는 자신이 리포트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해 버린다. 이 재판을 지켜 보던 주인공은 이제서야 모든 것을 깨닫는다. 왜 그녀가 한사코 책



을 그에게 읽어 달라고 했는 지를.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너무나 안타깝다. 까지 문맹이 뭐가 그렇게 창피스럽다고 그것만 인

정했어도 20년을 감옥에서 썩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자존심과 비밀이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존심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가 보다. 영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는 개인의 무력함도 보여 준다. 먹고 살기 위해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온 나쁘게 자신이 바로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할 때. 해답은 없다. 대개 어느 영화를 하건 그 배우 특유의 모습을 버리기 힘든데 이 영화에서 윈슬렛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역으로 그녀는 아카데미 주연 여우상을 수상했는데, 수상은 당연하다.

제29차 평의원회의 후원금 결산

정재훈(공대 64)	2,000 (7/9/20)	이강원(공대 66)	200 (8/21/20)
박종수(수의대 58)	1,000 (8/25/20)	정태영(문리 71)	200 (8/21/20)
신용남(농대 70)	1,000 (8/20/20)	주기목(수의대 68)	200 (8/5/20)
노명호(공대 61)	500 (5/15/20)	조정현(수의대 58)	125 (8/1/20)
박평일(농대 69)	500 (5/24/20)	지흥민(수의대 61)	100 (8/21/20)
윤상래(수의대 62)	500 (7/24/20)	곽상희(문리 52)	100 (8/21/20)
지흥민(수의대 61)	500 (8/14/20)	박재은(미대 63)	100 (8/21/20)
곽선섭(공대 61)	300 (8/18/20)	오 성(법대 76)	100 (8/21/20)
김종율(사범 51)	300 (8/21/20)	우규찬(사대 60)	100 (8/21/20)
연봉원(문리 61)	300 (8/21/20)	이성숙(공대 56)	100 (8/21/20)
오인환(문리 63)	300 (4/21/20)	장수영(미대 70)	100 (8/21/20)
박상원(음대 69)	220 (8/20/20)	조화영(음대 64)	100 (8/21/20)
오인환(문리 63)	200 (8/21/20)	최형무(법대 68)	100 (8/21/20)
민병갑(문리 63)	200 (8/21/20)		
백 순(법대 58)	200 (8/7/20)	서울 총동창회	5,000
백옥자(음대 71)	200 (7/7/20)		
손재욱(가정 77)	200 (8/21/20)	Total	\$15,045

제29차 평의원회의 수입 및 지출보고

수입보고		총수익금	\$15,045.00
평의원 회의 후원금	10,045	총지출금	\$19,432.74
Seoul Alumni 후원금	5,000	총계	\$(4,387.74)
Gross Profit		총수익금	\$15,045
지출보고			
Lecturer	강사료	1,200	
Lecturer (Panel)	패널리스트 비용	1,200	
Double Tree Hotel	평의원 행사 비용	11,435	
Musician	음악가 비용	1,600	
Printing & Stationary	바인더 & 사무용품	1,147.74	
Broadcasting Fee	방송 영상팀 전문가	1,500	
Banner	현수막	350	
Newspaper Advertising	신문 광고	1,000	
Expense Total	총지출금	\$19,432.74	

*제 29차 평의원 회의에 후원금을 납부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평의원 회비 대신에 후원금으로 대처합니다. 약간의 부족분은 후원금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후원을 당부드립니다.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95명)

(G)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곽용길 (문리 59)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재형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원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형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정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S)
임낙구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정재훈 (공대 64) (S)
재영현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귀희 (의대 68) (S)
한흥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민병근 (공대 65)
손석보 (공대 68)
전혜경 (문리 67)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승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G)
윤정욱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택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G)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워싱턴 DC
강연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홍 (법대 60)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워싱턴주
이희백 (의대 55)

시카고
남상홍 (공대 52)
심상구(상대 63)
이용락 (공대 48) (S)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S)
매릴랜드
최지원 (의대 61)
미네소타
김권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플로리다
김준현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종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S) 실버 이사 \$5,000 이상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종신이사

박원준 (공대 53)

박원준(공대 53)

박은희(미대 68)

김상찬(문리 65)

지흥민(수의대 61)

송용덕(의대 57)

윤인숙(간호 63)

손규성(사범 61)

유은희(간호 71)

김문경(약대 61)

임필순(의대 54)

이소희(의대 61)

전방남(상대 73)

이종묘(간호 69)

황현상(의대 55)

이경림(상대 64)

김상찬(문리 65)

*\$1,000이상 후원자

*\$500이상 후원자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2차 회기: 2019. 7. 1 ~ 2021. 6. 30)

전회장단 이월금 (6/23) 30,000 (10/31) 27,365.02 	차수만 (약대 71) 300 이소희 (의대 61) 250 임창희 (공대 73) 200 김순자 (치대 57) 100 김정화 (음대 56) 25 박수영 (농대 53) 25 	특별후원금 28차 평의원의회 후원금 서울 총동창회 3,000 김동희 (공대 66) 100 박평일 (농대 69) 200 송웅길 (신문 69) 150 유성은 (의대 88) 1,300 유시영 (문리 68) 300 윤봉수 (간호 69) 100 한태진 (의대 58) 500 카네기음악학회 후원금 신웅남 \$16,947.74 서울 총동창회 3,000 뉴욕지역 동창회 2,000 뉴욕지역 골든클럽 2,000 이만택 (미주재단) 4,500 강에드 (사대 60) 500 곽선섭 (공대 61) 300 권문용 (미대 61) 200 김광호 (문리 62) 1,000 김승호 (공대 72) 2,000 김종홍 (사대 53) 300 김해암 (의대 52) 1,000 노명호 (공대 61) 1,000 노용면 (의대 48) 100 민준기 (공대 59) 300 박영철 (농대 64) 2,000 정선주 (간호 68) 1,200 박윤수 (문리 48) 1,200 박중수 (수의 58) 1,000 박희병 (치대 63) 200 백승원 (의대 73) 1,500 석창호 (의대 66) 400 신종철 (의대 57) 200 이수호 (보건 69) 200 이용락 (공대 48) 650 이준형 (공대 48) 1,000 이중무 (의대 69) 500 신웅남 (농대 70) 2,000 연봉원 (문리 61) 300 윤상래 (수의 62) 1,000 윤은상 (상대 66) 80 이병준 (상대 55) 1,000 이상우 (의대 62) 100 이수호 (보건 69) 200 이용락 (공대 48) 650 이준형 (공대 48) 1,000 이중무 (의대 69) 500 정정옥 (의대 60) 200 조남천 (사대 59) 60 조달훈 (사대 66) 500 조상근 (법대 69) 1,000 최경석 (사대 80) 650 최수용 (상대 55) 500 최철용 (농대 57) 5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형무 (법대 69) 200 주재욱 (의대 57) 1,000 한경수 (문리 57) 300 한귀희 (미대 68) 1,400 한영수 (의대 61) 200 홍종만 (공대 64) 300 홍지복 (간호 70) 500 DOUBLE TREE (최용팔) 500 	일반후원금 남가주 정재훈 (공대 64) 5,370 이호표 (의대 58) 2,000 노명호 (공대 61) 1,000 박중수 (수의대 58) 1,000 양서명 (보건 68) 850 노명호 (공대 61) 500 오영숙 (간호) 500 김정희 (음대 56) 500 이창신 (법대 57) 500 임낙균 (약대 64) 500 백옥자 (음대 71) 400 이범식 (공대 61) 400 심상은 (상대 54) 300 곽웅길 (문리 59) 200 김태환 (의대 58) 200 김관식 (의대 61) 500 문성인 (공대 88) 50 차재호 (농대 84) 50 메사추세츠 윤상래(수의대 62) 500 고종성 (사범 75) 400 김광수 (자연 73) 200 노스캐롤라이나 김영환 (상대 67) 200 박민식 (수의대 65) 200 김영순 (음대 59) 200 김동석 (음대 64) 200 전경철 (공대 55) 200 최용원 (공대 57) 200 양승문 (공대 65) 200 신동국 (수의대 76) 150 김상찬(문리 65) 100 고김용삼 (음대) 100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길중 (약대 69) 200 박은희 (미대 68) 200 강창욱 (의대 55) 100 시카고 이용락 (공대 48) 500 이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이정희 (사대 54) 200 강상진 100 허병렬 (사대 42) 100 이상원 25 민준기(공대 59) 25 뉴저지 김명철 (공대 60) 200 이준우 (음대 65) 200 이운순/고애자 (의대 52)(음대57) 400 뉴잉글랜드 박영철/정선주 2,000 (농대 64)(간호 68) 윤상래 (수의대 62) 500 김광수 (문리 77) 200 심상은 (상대 54) 200 김정환 (공대 52) 200 미네소타 김관식(공대 61) 500 문성인 (공대 88) 50 차재호 (농대 84) 50 메사추세츠 윤상래(수의대 62) 500 고종성 (사범 75) 400 김광수 (자연 73) 200 노스캐롤라이나 김영환 (상대 67) 200 박민식 (수의대 65) 200 김영순 (음대 59) 200 김동석 (음대 64) 200 전경철 (공대 55) 200 최용원 (공대 57) 200 양승문 (공대 65) 200 신동국 (수의대 76) 150 김상찬(문리 65) 100 고김용삼 (음대) 100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길중 (약대 69) 200 박은희 (미대 68) 200 강창욱 (의대 55) 100 시카고 이용락 (공대 48) 500 이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버몬트 최선희(문리 69) 100 아리조나 박양환 (약대 48) 200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500 박희진 (농대 78) 200 한영준 (사대 60) 100 오올라호마 김경숙(가정 70) 200 이상강(의대 70) 200 오하이오 서홍환 (수의대 75) 300 일리노이 조형원 (약대 50) 500 홍정일 (약대 57) 200 김연화 (음대 68) 200 소진문 (치대 58) 200 이영우/김동희 (문리 66)(공대 66) 200 김성범 (상대 50) 200 워싱턴 DC 권철수 (의대 70) 200 서윤석 (의대 62) 200 이영목 (공대 59) 200 이서구 (문리 61) 200 조지아 정영근 (농대 59) 200 송용덕 (의대 57) 200 백성식 100 정량수(의대 60) 25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 77) 500 조정현 (수의 58) 200 이만택 (의대 52) 200 김태환 (의대 58) 200 김창무 (음대) 200 김학철 (의대 55) 200 김화섭(의대 55)* 200 나두섭 (의대 66) 200 조정현 (수의 58) 200 정태광 (공대 74) 200 진병학 (의대 57) 100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200 오석일 (의대 64) 200 한성수 (의대 54) 50 황현상 (의대 55) 200 케네티컷 김기훈 (상대 52) 200 휴스턴 진기주 (상대 60) 500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웹사이트 광고비 손재욱(가정 77) 500 차민영(의대 76) 30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2019/7/1~2020/6/30) 뉴욕(6/30/2020) 3,000 남가주(2/21/20) 3,000 시카고(3/19/20) 2,400 워싱턴 D.C.(1/17/20) 2,000 필라델피아(3/25/20) 1,500 북가주(6/2/20) 1,200 뉴잉글랜드(4/16/20) 1,000 미네소타(3/13/20) 600 워싱턴주(3/25/20) 600 하트랜드(5/12/20) 600 북텍사스(5/12/20) 550 샌디에고(6/2/20) 550 조지아(3/25/20) 400 하와이(3/4/20) 300 오레곤(5/5/20) 300 오하이오(5/12/20) 300 조지아(5/29/20) 200 테네시(5/5/20) 200 케네티컷(5/6/20) 200 알라스카(5/12/20) 200 플로리다(5/12/2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한영수 (의대 61) 200 이운순 (의대 52) 200 유은희 (간호 71) 200 이영은 (사범 57) 200 조남천 (사범 59) 200 조한철 (의대 58) 200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뉴욕 이준형 (공대 48) 1,0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손규성 (사범 61) 500 강 예드워드(사대 60) 400 조맹대 (간호 47) 375 김문경 (약대 61) 300 김해암 (의대 52) 200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nunp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중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외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나성 약국
임낙국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외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외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외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외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내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건설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oak.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jp@snu.ac.kr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_	☐ \$75 (2020. 7 ~ 2021. 6) ☐ \$150 (2020. 7 ~ 2022. 6) ☐ \$3,000 (종신이사회비)	☐ \$240 (2020. 7 ~ 2021. 6) ☐ \$480 (2020.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a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감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윤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영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웅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중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흥목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

동창회 운영기금 century foundation 관리 위원회: 위원장 손재욱(전회장)
--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최용준 (수의대)	818-450-7868 yongjunechoi@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l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Jul-Jun
	차기회장	김유경 (음대 72)	781-223-4411 YkimLC@yahoo.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Jan-Dec
	차기회장	김윤하 (공대 66)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ia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이영진 (공대 76)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차기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ros@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지홍민 (수의대 61)	215-512-9510 hmchi876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이성숙 (가정 74)	610-417-4789 ssh1120@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택 (사대 68)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들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치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www.taycoeng.com

Tayco Engineering, Inc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Temperature Sensors/ Spacecraft Subsystems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백승원 위장내과

“위장내과만 전문 진료합니다”

원장 백승원 (의대 73)

포트리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에디슨 732-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EVERLY CARDIOLOGY GROUP

김일영 M.D (의대 65)

www.beverlycardiology.com T: 323-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한남체인과 함께하면

언제나 웃음이 있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또 신선한 제품으로만

전해드리기위해 새해에도 한남체인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기는 365일,

고객과 함께하는

한남체인입니다

한남체인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대표: 하기환(공대 66)



Los Angeles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orrance

토랜스점
(310) 539-8899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Fullerton

플러튼점
(714) 736-5800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Diamond Bar

다이아몬드바점
(909) 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La Palma

라팔마점
(562) 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4

New Jersey

뉴저지점
(201) 224-0036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